

CELEBRATING 100 YEARS OF TANK

cartier.co.kr



TANK LOUIS CARTIER WATCH

카르띠에 1566-7277

# Style

조선일보



FALL 2017  
 ART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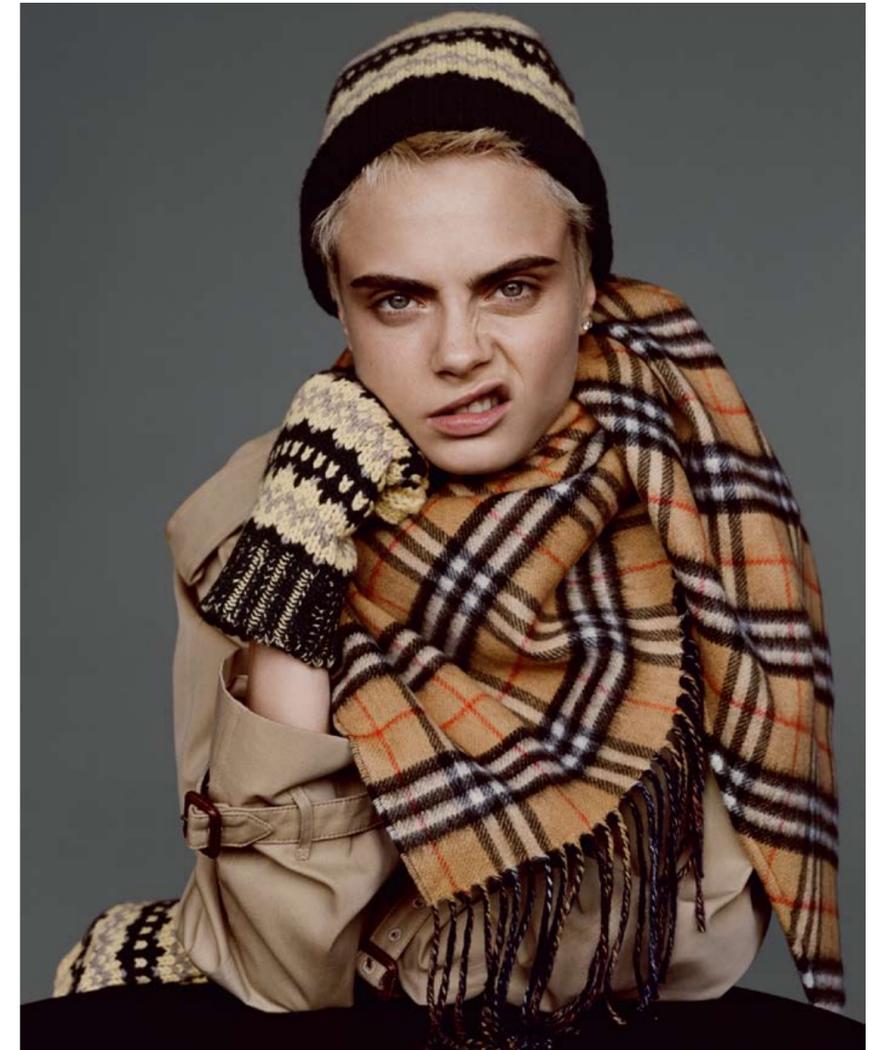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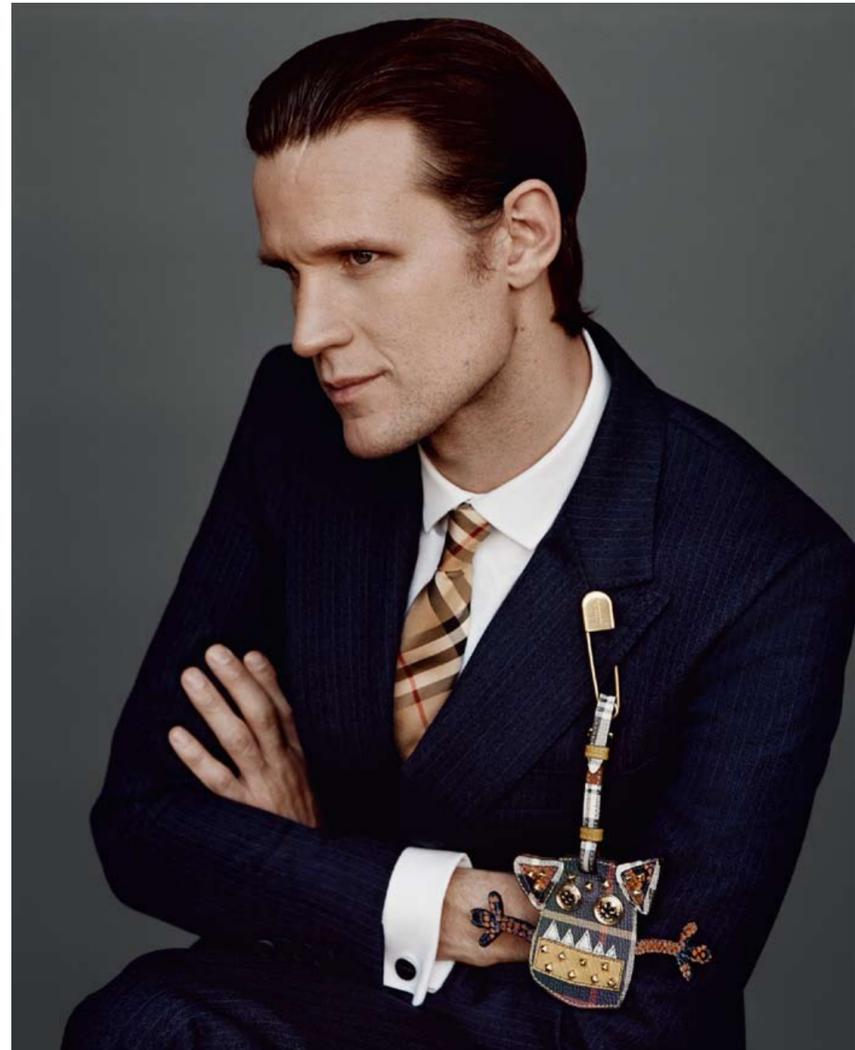
# CHANEL

FINE JEWELLERY



## COCO CRUSH

RINGS IN DIAMONDS, WHITE AND YELLOW GOLD



**BURBERRY**



44



36



40

**Style** 조선일보

대지연의 강아지들은 이별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색에 자라온 매기 햄블링의 스튜디오는 '물방아'라고 부를 만큼 넓은 공간을 끼고 있다. 오존스에 담배를 든 로즈는 햄블링을 상징하는 트라피드마크 같은 것이다.

FALL 2017 ART + CULTURE

시작: 매기 햄블링 (Maggi Hambling)

표지에 등장한 인물은 잉글랜드 서퍽(Suffolk)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스타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영국 아티스트 매기 햄블링(Maggi Hambling). 1960년대 런던의 문화적 변화에 흡수 겪은 '퀴어' 문화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얘기했다.

**QUEER ART SPECIAL**

**DEFYING CATEGORIZATION** 영국 원로 작가 매기 햄블링의 작업실에서 1960년대 런던의 문화적 변화에 태동한 퀴어 문화, 프랑스스 베이컨과의 만남, 그리고 평생 매료되었던 오스카 와일드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었다.

**QUEER ART NOW** '퀴어(queer)'라는 용어는 한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성 정체성이 다른 여러 그룹을 통칭하는 단어로 어색하지 않게 사회,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LGBTQ 현대미술, 역사적 전개와 그 이후** LGBTQ 현대미술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한국 퀴어 아트의 현주소를 미술 연구자 임근준이 전한다.

**ART MARKET**

**송자 독시 시대, 한국 미술 살아남기** 철저한 송자 독시의 구도에서 존재감을 막 알리기 시작한 한국 미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KOREAN ART SCENE**

**70 대구 스피릿을 되돌아보다** 예술은 결코 순위나 기록 싸움을 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지만,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미술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비엔날레가 전국에 걸쳐 열리고 있지만 '브랜딩 인지도'와 '수준'을 겸비한 선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선의 탐구, 빛의 시간** 부산시립미술관 김성희 관장이 내년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전, 뉴욕과 파리의 개인전을 준비 중인 남준모 작가를 거창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미술 한류로 피해만 하는 이유** 미술 '한류'가 가능할까? 미술 생태계도 점점 규모와 시스템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구도에서는 미술 역시 작은 내수 시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피해 갈 수 없다. 시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온 필자는 '동시대 미술에서 한류가 가능한가'보다는 한국의 동시대 미술에 한류시 논리와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말한다.

**EXHIBITION IN STYLE CHOSUN**

**경계, 그 사이를 잇다** 저먼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가 5인-이강소, 이배, 최병소, 허중현, 오수환-은 비움과 채움, 소멸과 생성, 인위(人爲)와 무위(無爲), 물질과 행위 등 상반된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장인적 예술가들이다.

**SPACE & PEOPLE**

**RICK OWENS IN VENICE** 해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 리도 섬에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스타일로 손수 꾸민 여름 별장을 찾아가 나눈 리크 오웬스와의 대화.

**PRITZKER WINNERS' WAY** 현대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프리츠커상은 최근 더 젊어지고, 수상자의 면면이 다채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그중 3인의 건축 철학을 요즘 미디어상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유현준 건축가가 소개한다.

**MASTER OF SCENES** 무대 연출과 전시 디자인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캐나다 출신 크리에이티브 로버트 카슨(Robert Carlsen)이 직접 들려주는 시노그래피의 세계.

**MISCELLANEOUS**

**IN SEARCH OF HENRI MATISSE' TRACES** 사대를 넘나드는 영혼의 울림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자취를 그가 태어난 르 카토-캉브레시와 생의 후반기를 수놓은 코트다쥐르에서 찾아냈다.

**MALI TWIST** 사진작가 말리크 시디베(Malik Sidibe)는 아프리카에 대한 사구의 사상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아티스트였다. 지난해 볼 타게한 시디베를 추모하는 전시가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열리고 있다.

**A POWERFUL ENGINE** 80시간 영화제, 3인의 액세서리와 함께한 최고의 80시간을 기록한 영상으로 티쏘의 가치를 되바다.

**MOMA IN PARIS** 파리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 올해에는 명실공히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이 자랑하는 현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과 손을 잡았다.

**Style** 조선일보 **FALL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은서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 채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OSSESSION

piaget.kr  
 +82 (0)2 3467 8924

**PIAGET**



**KT&G 상상마당 (스위트 팩토리)**

20세기 가장 시리즈 기획된 일화로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켄틴 블레이크(Kentyn Blake, 1932~) 전사가 KT&G상상마당 갤러리(4~5F)에서 개최되고 있다. 켄틴 블레이크는 로알드 달(Road Dah)의 아동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화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60여 년간 판만 하면서도 성인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감성을 담은 동화를 발표해왔다. 원화 작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과 그림을 통한 스토리텔링에 뛰어난 이티 스트로서의 면모를 증명하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를 비롯한 작품 1백80여 점과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이 흥미롭다.

전시 기간 2018년 2월 20일까지  
문의 www.sangsangmadang.com



**한미사진미술관 <책가도 冊架圖: 정물과 초상>**

"책가도는 작품 속 오브제와 텍스트를 읽어내는 작품입니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대면한 관객이 작품 속 책의 제목을 읽고, 소품을 보면서 책장의 주인공과 마주하게 됩니다." 암수식 작가의 대표작인 '책가도' 연작을 집대성한 이번 전시는 지난 10여 년간 3백50개가 넘는 누군기의 책장을 촬영하며 작가가 만난 오브제와 개인, 그리고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참여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가는 전시 기간 중 관객이 직접 찍어 보낸 책장 사진을 하루도 모야 한 장의 대형 책장 사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기간 11월 25일까지  
문의 www.photomuseum.or.kr



**이들리에 에르메스 <몽드르가와 이연더가의 모퉁이에서, 1938-1954>**

베나수엘라 출신의 작가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Rosa Maria Unda Souki)의 개인전 <몽드르가와 이연더가의 모퉁이에서>(On the Corner of Londres and Allende Streets, 1938-1954). 로사 마리아 운다 수키는 2012년부터 몽드르가와 이연더가의 모퉁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멕시코의 유명한 미술가 프라다 칼로와 푸른 집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옛집을 둘러싼 기억을 따라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누군기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집에 맨 기억과 일상에 관한 관상에서 비롯된 작업은 프라다 칼로의 삶과 집을 중첩시켜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시공간적인 공간을 만든다.

전시 기간 2017년 12월 8일~2018년 2월 4일  
문의 www.hermes.com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

영국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영국 팝아트의 선구자인 리처드 해밀턴 개인전을 주목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전사로 기획되었으며,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선보인 대표 연작을 통해 작가가 탐구한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잡지 광고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전자 제품 브랜드 브라운(Braun)의 기기를 소재로 삼은 '토스터', '불판' 악물 소리로 호응되는 믹 재기와 로버트 프레이저 사진으로 만든 '스윙링 런던', 북아일랜드 수간자들이 감옥에서 펼쳐는 '발걸 투쟁'을 담은 '시인' 시리즈 등의 연작은 작가를 단순한 팝아티스트로 정의할 수 없게 한다.

전시 기간 2018년 1월 21일까지  
문의 www.mca.go.kr



**제23회 서울옥션 홍콩 세일 프리뷰**

서울옥션 홍콩 경매가 아시아 미술 시장 중심지인 홍콩의 그랜드 하얏트에서 11월 26일에 열린다. 이에 앞서 서울과 홍콩에서 진행되는 <프리뷰> 전 시에서는 한국 작가 중 최고가 경신 기록을 보유한 김환기는 물론 이우환, 박서보 등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우리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또 구사마 이요미, 시슬리 브라운, 드뷔세 등 해외 작가의 좀처럼 접하기 힘든 작품도 출품된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 고미술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환수가 기대된다. 홍콩 현지 경매는 11월 26일 4시(홍콩 시간)에 시작된다.

전시 기간 (서울 프리뷰)는 11월 11~19일(서울 평행동 서울옥션 스페이스), (홍콩 프리뷰)는 11월 24~26일  
문의 www.seoulauction.com



**학교재 <오세열: 무구한 눈>**

지난 2월 개인전 개최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선보이는 전시로, 인물 그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인물'은 오세열의 40년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다. 그는 인물을 중심으로 숫자와 오브제로 소재를 발전시켜서 작품 세계를 넓혀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창작한 인물화 33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그린 불완전한 모습의 인물을 '백자와 같은 사람'이라 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보니 자연스레 '백자'를 작품에 등장시켜 왔다고.

전시 기간 11월 18일~12월 17일  
문의 www.hakgojae.com



**제1회 제주비엔날레 <투어리즘>**

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일드르비행장, 이종섭 가리,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의 현재를 상징하는 키워드인 관광을 주제로 삼아 대중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여행과 유명 관광지에서 서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해관계의 차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사다. 특히 '숨은 명소'로 불리는 일드르비행장이 이번 전시가 흥미로운데, 일드르비행장 당시 전투기를 보관하던 비행장이 농민들의 경작지와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있으니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여러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전시 기간 12월 3일까지  
문의 www.jejuennale.com



**국립중앙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The Dresden State Art Collections)을 대표하는 그린볼트박물관, 무기박물관, 도자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백30점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시품은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크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Augustus the Strong, 1670~1733)가 수집한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화려한 바로크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며, 상아, 청동, 은 등 재질에 따라 공간이 분류돼 있다.

전시 기간 11월 26일까지  
문의 www.museum.go.kr

# INSIGHT

겨울바람이 차갑다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기에 흥미로운 전시가 많다. 리처드 해밀턴, 전혁림 같은 가장부터 오세열, 이강소, 헤르만 바스 등의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도 넓다. 회화, 사진, 조각, 디자인, 원화, 왕실 소장품 등 장르도 다채로우니 이번 주말, 갤러리를 방문해보면 어떤가요?

**Editor's Note**

2017년은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아트 행사가 유난히 많이 열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아트 비젤, 카셀 도쿠멘타, 핀스터 조각 축제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현대미술 애호가들이 가까이 유럽행을 감행했습니다. 수백 년 전 유럽에서 유행한 인문학적 지식 여행 '그랜드 투어'를 빗대 '그랜드 아트 투어'(grand art tour)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지요. 사실 '그랜드 아트 투어'의 주요 코스를 밟는 여정은 굳이 체력 단련이나 살 빼기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하루 2만~3만 보 정도는 저절로 섭렵하게 되는 대장정입니다. 이처럼 강행군을 선택한 보람을 느끼려면, 단순한 지식의 채집이 아닌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여행으로 남아야 할 텐데요. '하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보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안목이 조금 달린다고 해도 자꾸, 많이 보다 보면 얻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적, 미학적 성장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떤 렌즈를 통해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을 갖고 바라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인간이 지닌 다양한 편향 중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신념과 일치하는 증거에는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반대되는 증거에는 충분히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인지적 결함들입니다. 이 편향이 심화되면 철대로 공평무사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흡수할 수 없지요. 편견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미술 관계자도 이 빛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미술 축제의 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으니까요. 물론 저 자신을 비롯해 누구도 편견이나 편향을 지니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 피해자가 되지 않아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 담긴 콘텐츠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 더 많은 진실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술이란 것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 여기는 시각에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동의할 테니까요.

(ART + CULTURE Edition)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고성현



FENDI.COM/TIMEPIECES

**FENDI**  
TIMEPIECES



**서울미술관 <사랑의 묘약 - 열 개의 방, 세 개의 마음>**  
오페라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에 기반을 두고 사랑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미술 작품을 통해 느껴볼 수 있는 전시다.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은 한 여인이 다바를 사랑하는 남자(네로니노)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다. 전시는 10개의 색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 중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열 가지 감정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를 미술가 티쿠 빈하이, 밥 캐리, 이리마 그루벤홀츠, 안민정, 장보영, 신왕 등이 작품으로 표현했다.  
전시 기간 2018년 3월 4일까지  
문의 www.seoulmuseum.org



**우승갤러리 <이강소: Becoming>**  
'becoming'은 이강소의 실험성 강한 초기 파포먼스를 비롯해 최근 휴을 던져 만드는 세라믹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타이틀로도 꾸준히 등장하는 작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업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적 언어를 탐구해오고 있는 이강소의 행적을 되짚어보며, 초기 전위적 파포먼스가 어떻게 조각과 회화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강소의 작품은 얼마 전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기획전 (A Bigger Splash)에서 1960~70년대 행위 예술을 선도한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되었고, 단색화 2세대로도 소개되고 있다.  
전시 기간 2018년 1월 12일까지  
문의 www.woosungallery.com



**리안갤러리 서울 <김두진-EARTH>**  
사양미술사의 명화 속 주인공을 해골 이미지로 변형하는 방식의 디지털 회화로 알려진 김두진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신작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적 주제의 작품을 오마주했는데, 사슴 같은 동물의 뼈를 3D 모델링 기법으로 형상화해 수없이 덧붙이는 방식으로 완성했다. 특히 사슴 뼈를 형상화한 것은 조선시대 미술가 채유선의 '삼장생도'에서 영감을 받는 사슴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 작가는 전작의 해골과 미친카자로 동물 뼈는 '죽음'이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삶과 공존하며 대립의 이분법을 옹호하는 자명이라고 말한다.  
전시 기간 12월 16일까지  
문의 www.leeahngallery.com



**일민미술관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화해온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 전시다. 소리와 춤, 리듬 같은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하는 음악적 기호와 화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민중의 역사에 주목한다. 현대인이 자율적인 공동체적 화음을 통해 삶을 윤희하게 놓아놓기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기획했다. 한국 전통 공동체 모델인 '두레의 리듬'과 몸짓에 대한 기억과 기록에서 출발했으며 8명의 연구자를 포함해 총 30여 팀의 사회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행동가, 디자이너, 예술가 등의 연구 자료로 구성된 사각 아카이브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무대를 제시한다.  
전시 기간 12월 3일까지 문의 www.ilmin.org



**다뮤지엄 <PLASTIC FANTASY: 상상 사용법>**  
'플라스틱의 어원이 '빛이 반사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지?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플라스틱이 탄생시킨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불리는 플라스틱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킨 여정을 보여주며, 반세기 동안 40여 명의 크리에이티브가 탄생시킨 2천 7백여 점의 제품, 가구, 조명, 그래픽을 망라한다. 산업용 플라스틱에 무아함을 더해 거장으로 들어온 디자이너 안나 카스텔리 페리 에리를 시작으로 산업 디자인의 대부 조에 세자르 콜롬보, 20세기 산업 디자인의 아이콘 필립 스타크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 기간 2018년 3월 4일까지  
문의 www.daeilmuseum.org



**K현대미술관 <The Blue Sea in the Blue House: 남을 위한 바다>**  
"그림은 국적이 뚜렷해야 한다. 내 그림에는 한국이 나타나 있다." 전시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K현대미술관의 기획전 특별 기획전을 장식할 대표작은 현재 청와대 인왕실에 소장된 '통영항'(2006)의 원작, '통영항'(2005)이다. 이 그림은 작가가 91세의 나이로 통영 앞바다의 풍경을 그리던 해에 3m, 폭 6m의 대작이다. '통영항'(2006) 원작의 다른 버전인 '한려수도'의 추상적 풍경, '기동 시아로 보이는 한려수도' 역시 전시된다. 1000호가 넘는 이 대작들은 작가 바디의 심연과 추상적 광면성을 융합하려 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전시 기간 2018년 2월 11일까지  
문의 www.kmcaseoul.org



**아리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 畫 (일화, One Stroke of Painting)>**  
재물 미디어 아티스트 김순기의 개인전으로, 전시 제목 '— 畫(일화)'는 모든 화법의 근본인 일화(一畵)를 근간으로 하는 화가 석도(石濤)의 화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김 작가의 활쓰기 작업과 맥을 같이한다. 작가는 대략 사절 전통 활쓰기를 배웠고,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에도 몸과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활쓰기를 계속했다. 활쓰기는 자연스럽게 김순기 작가의 예술 행위이자 삶의 한 부분이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활쓰기 과정을 담은 영상 작품 '— 畫(일화)'를 비롯해, 작가가 직접 그려 과녁판으로 사용하던 회화, 드로잉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 기간 2018년 2월 25일까지  
문의 www.arioriomuseum.or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임흥순 -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믿음, 신념, 사랑, 배신, 증오, 공포, 유령>**  
'MMCA 현대차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의 영상, 설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할머니 4명의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한태사를 돌아본다. 이 굴곡진 역사 속 사건을 전시장으로 불러와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이념, 성, 정치, 세대 등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그려낸다. 전시 개막 한 달 전부터 작품 설치, 촬영 과정을 공개하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다.  
전시 기간 2017년 11월 30일~2018년 4월 8일  
문의 www.mm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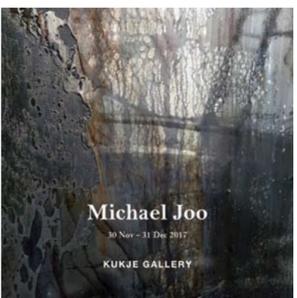
**아트스페이스 와트 <Ambivalence(대립의 공존)>**  
하태범 작가의 열세 번째 개인전. 그간 진행해온 '화이트 시리즈'와는 또 다른 조형적 실험으로 꾸민다. 작가는 '화이트 시리즈'를 통해 사진, 설치, 영상,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디어 소비를 둘러싼 사람들의 방방자적 소비 패턴을 포착한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 그 소비 심리의 양극적 감정의 공존을 풀어냈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바로 마주하게 되는 영상 작업인 '하루'는 작가가 난민 수용소, 전쟁터에서 획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전시 기간 12월 9일까지 문의 http://gallerywatt.com



**송은수장고 <Not Your Ordinary Art Storage>**  
송은문화재단은 2020년 건축가 헤어초크 & 드 뢰론의 신시옥 건물이 예정되어 있는 도산대로 건물에서 특별 전시를 열고 있다. 그간 송은아트스페이스와 송은아트큐브를 거쳐 간 작가 34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층은 강서경, 남경민, 백장기 등 송은문화재단 소장품 중 설치, 회화, 사진 작품을,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 특성을 살려 송은미술대상 수상 작가 등 7명의 (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전시장 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예술적 요소에 대한 작업을 탐구한 이정형, '빛'을 통해 삶의 본질을 고안한 전민혁 등의 작품이 흥미롭다.  
전시 기간 2018년 5월 26일까지  
문의 www.songeunartspace.org



**아트스페이스벤 <세상의 끝에서 다른 세상을 보다>**  
한상필 작가의 사진전 (세상의 끝에서 다른 세상을 보다(From the Edge of View))가 올 가을과 겨울을 그만의 감성을 담은 사진으로 수놓고 있다. 잘 알려진 '파사드 프로젝트' 시리즈, 남극과 북극권의 모습을 담은 사진뿐 아니라 이번엔 세상에 선보이는 오로라와 개가일식 렌티큘러 작업이 흥미롭다. 작가는 실제와 재현의 경계, 환경과 자연 개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반영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작품과 소재를 선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관람객이 전장을 통해 살펴보는 것, 보이는 것, 상상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전시 기간 2018년 1월 25일까지  
문의 www.artspaceben.co.kr



**국제갤러리 <마이클 주>**  
국제갤러리는 2017년 마지막 전시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온 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작가의 첫 전시이자 10여 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개인전. 갤러리 2관과 3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메리안 코리안' 마이클 주가 최근 2년간 DMZ 지역, 울릉도, 독도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회화, 조각, 설치 등의 매체를 아우르는 30여 점의 신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시 기간 11월 30일~12월 31일  
문의 www.kukjegallery.com



Masters – A collaboration with Jeff Koons

LOUIS VUI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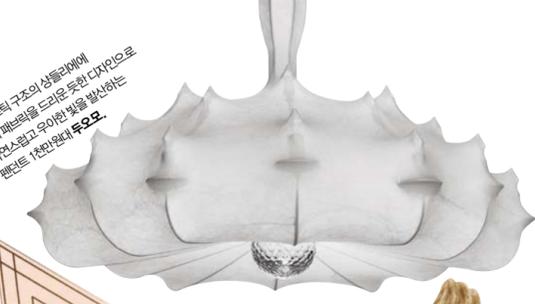
전통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크리스털 아이템으로, 조르주 슈빌리에가 태양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미려 1억 2천만 원대 바카라.



투명하면서도 순수하고 기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필립 스타크 디자인의 중전식 테이블 램프 80만 원대 두오모.



로코코 시대 의상을 입은 여인이 그녀를 타는 모습을 섬세하고 정교한 도자기 공예로 표현한 포슬린 아트 피스 3백80만 원 아드로.



캔들 스타크 구조의 상투리케에 마치 페르마를 드러낸 듯한 디자인으로 지인스라고 우아한 정열을 발산하는 펜던트 1천만 원대 두오모.



남부 이탈리아 지역 특산물 장식 디테일에서 영감을 얻어 기하학적인 패턴을 선으로 표현한 미려 88만 원 집발랑.



섬세하고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이는 다량위 형태의 저금통으로, 골드 컬러가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오브제 5만 원 데이글로우.



조형적인 느낌이 드는 여인의 얼굴을 흑백 포트레이트리스트 포나시체의 예술관을 담아낸 테이블 램프(조명 및 장식 기능) 2백만 원대 포리나비 by 10 포르소 꼬모.

# Selection

영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클래식도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화려한 컬러, 우아한 곡선, 정교한 디테일로 무장해 궁극의 매력을 발산하는 네오 클래식 아이템. *photographed by maeng minhwa*



얇은 골드 프레임과 크라운의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가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품 2백만 원대 abc갤러리.



1920년 에르네스트 발렌타인 크리스티의 청동 조각상 미러를 표본으로 제작된 소재로 재탄생 오브제 7천4천 원 에이저픽스.



물방울 모양의 섬세한 카빙과 로열 블루 컬러 조합이 인상적인 삼페인 글라스 33만 3천 원 크리스토폴.



정교한 세공과 유려한 라인으로 고전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배가한 훗대 3백38만 원 크리스토폴.



스페인 그래픽디자인의 대가로 손꼽히는 허티에르 마리스칼이 디자인했으며, 컬러 매치와 곡선이 아름다운 라운지 체어 가격 미정 모로소.



우아하고 디테일한 손잡이 장식과 황동 소재가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는 캔들 스타크 9만 원 라곰.



18K 골드 프레임에 벨벳 쿠션이 우아하고 장식적인 형태미를 선사하는 암체어 9백만 원대 두오모.



라곰 02-6365-5162  
두오모 02-516-6164  
모로소 02-3442-1952  
더앤선 02-3446-4668  
바카라 02-3448-3778  
아드로 02-3449-5483  
집발랑 070-8842-0835  
abc갤러리 02-545-3799  
데이글로우 02-6397-9937  
10 포르소 꼬모 02-3018-1010  
에이저픽스 02-3461-0172  
크리스토폴 02-3479-1828

벨벳 소재와 식물을 연상시키는 모티브로 독창적인 캐릭터를 담아낸 나카 주판코 디자인의 스타라스트 소파 2천만 원대 더앤선.

강남구 압구정로 458 - SEOUL  
02. 514. 0900



LIU BOLIN PERFORMING FOR MONCLER

moncler.com

# Defying Categorization

interview with Maggi Hambling

영국 원로 작가 매기 햄블링은 미술이 성 정체성에 따라 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잉글랜드 서쪽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업실에서 1960년대 런던의 문화적 번영기에 태동한 퀴어 문화, 프랜시스 베이컨과의 만남, 그리고 평생 동안 매료되었던 오스카 와일드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Maggi Hambling refuses to be categorized by her sexual orientation. Rather, she strives to live in the moment, responding to what's happening in life. During an interview at her studio in Suffolk, England, she talks about the queer art scene in London's "Swinging Sixties," her encounter with Francis Bacon, and her life-long fascination with Oscar Wilde and sea waves.



1

매기 햄블링의 집과 작업실이 위치한 영국 남동쪽의 고즈넉한 마을 서퍽(Suffolk)의 풍경은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영국의 여유로운 시골 풍경을 절로 연상시킨다. 호크니와 함께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햄블링. 올해 72세로 흰 머리를 닦아주는 노작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이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인터뷰는 그녀의 아늑한 보금자리인 딸린 넓은 정원 뒤쪽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건조 헛간으로 사용하던 스튜디오의 문이 덜컥 열리자 햇살이 그녀의 최신작인 파도 그림을 비추며 꽤 모던한 화이트 큐브 형태의 공간이 자태를 드러냈다. 햄블링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내뿜 개버를 줄줄이 피워냈다. "유화물감을 처음 묻힌 날부터 제 손에는 늘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햄블링은 14세에 학교 미술 교사의 말을 듣고는 처음 담배를 피웠다. 야외에서 유화를 그리고 있는데 자꾸 날벌레가 달라붙자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담배 연기로 벌레를 쫓을 수 있다고 귀뜸해준 것.

The southeast English county of Suffolk, where artist Maggi Hambling lives and works, unfolds idyllic landscapes that are reminiscent of the English countryside paintings by David Hockney. Hambling, 72, is one of the foremost artists representing the British art scene today. The beautiful village on the east coast of England is where the artist was born and raised. The hay barn-turned-art studio, where the interview took place, sat comfortably in the back of her beautifully large garden. When she first opened the studio door, the sun shined through into a rather modern, white-cubed space displaying her latest paintings of the sea. She then lit her first cigarette and went on to smoke another four or five throughout the interview. "Since the moment I had oil paint on my hand, I had a cigarette," said Hambling, adding that she started smoking when she was 14 after being told by her art teacher that cigarettes help repel insects from oil paintings.

## 성 정체성 찾아가기

햄블링은 출연과 동성애가 금기시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확장 시절을 보냈다. 진보적인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적극적이었다. 런던에서 미디어에 막 입회했을 당시 19세이던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4명의 각각 다른 파트너-연상남, 연하남, 흑인 남성, 그리고 여성-와 만남을 가졌다. "여성을 선호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저는 다 시도해봤어요. 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 체크해야 할 소풍 목록 같은 거였죠. 꽤 험라하지 않나요?" 20대 미디어로서 햄블링은 런던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활기찬 시절 중 하나인 '스윙잉 1960년대(Swinging Sixties)'를 경험했다. 당시 영국의 젊은 세대는 성적 자유, 비현화 운동, 그리고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로 상징되는 시대를 만들어냈다. 햄블링은 자신이 속한 예술 사회에서는 '파트너와 프랜시스

베이컨,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로 상징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녀가 베이컨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건 서퍽의 입스위치(Ipswich)에 위치한 자신의 스승 아서 렛-헤인즈(Arthur Lett-Haines)의 스튜디오. 그곳에서 햄블링은 여장 남자를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작품 앞에 선 채 제게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전 너무 수줍은 나머지 말조차 꺼내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아내층으로 내려가더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 귀가 먹은 거야, 아니면 병어이?'" 베이컨과 햄블링에게는 공통분모가 생기도 했다. 둘 다 헨리에타 모라에스(Henrietta Moraes)라는 여성에게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는 점이다. 모델이자 런던 소호의 사교계를 주름잡던 여왕 같은 존재였던 모라에스. 그녀는 베이컨의 작품 모델이자 친구였고, 나중에는 햄블링의 연인이자 무즈가 됐다.

## Discovering sexual identity

Hambling said she was fortunate to have spent her school years in a liberal environment, where smoking and homosexuality were not so taboo. Her progressive upbringing braved her to venture discovering her sexual identity. When she began as a student of Camberwell School of Arts in London at the age of 19, she decided to conduct a social experiment to test her sexuality. She decided she would meet four different partners - an older male, a younger male, a black man, and a female. "I decided I prefer a lady. I tried everything to see," Hambling said. "It was a shopping list that I had to get through to find what I like. It's very sensible, isn't it?" She continued on to spend the culturally vibrant "Swinging Sixties" in London as an art student. The mid-to-late 1960s ushered in a youth-driven cultural boom symbolized by sexual liberation, anti-nuclear campaigns, and a culture of free-spirited experimentalism. She referred to the art world at that time period as being characterized by "parties, Francis Bacon, and David Hockney." Hambling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Bacon at an art studio in Ipswich, Suffolk that belonged to her teacher Arthur Lett-Haines. Bacon happened to visit the place where Hambling was showcasing her painting depicting a drag queen. "He stood in front of it and talked to me about it. But I can't remember what he said and I was too shy to speak. And I didn't say anything. He went downstairs and asked, 'Is that girl deaf and dumb?'" Bacon and Hambling also shared a muse in Henrietta Moraes, dubbed "Queen of Soho." The model and a friend of Bacon later became Hambling's lover.

Art: Jack Lee

햄블링은 1960년대 영화감독 데릭 자먼(Derek Jarman)을 비롯해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젊은 퀴어 아티스트 세대에 속한다. 그녀가 게이(gay) 대신 퀴어(queer)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친구인 자먼의 영향이 크다. "모두가 '게이'라고 할 때 그는 퀴어라고 부르기를 주장했죠. 퀴어가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퀴어는 '기이한'이라는 뜻으로 19세기 말부터 동성애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쓰여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저면과 같은 성 소수자 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 억눌린 동성애에 대한 해방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다. 퀴어는 예술계에서 세련됨과 동일시될 정도로 신분 상승을 했지만, 햄블링은 성 정체성으로 작가를 분류하고, 그들을 퀴어 아티스트라는 범주 아래 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쪽 영역에서 예술은 항상 운이 좋은 편이었죠. 작가들은 제마나나 관습 등에 억압받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했었으니까요."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남성성도, 그리고 여성성도 내재해 있죠.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결국 예술인이 중요한 거죠."

Hambling belongs to a generation of young, gay artists during the queer art scene of 1980s London, along with her contemporaries such as filmmaker Derek Jarman. "He made me promise when everyone was saying gay, always say queer. It used to be much more aggressive word than it is now," she said. "Queer," meaning strange, was used to pejoratively refer to homosexuals since the 19th century. Since the 1980s, the term was reclaimed by gay rights activists like Jarman to represent liberation from repressed homosexuality. The term "queer" has now become associated with chic style in arts, but she doesn't like the idea of categorizing artists based on their sexual differences, or putting a label on them. "Art has been always lucky in that department. Artists have always done what they want to do regardless of any constraints or convention or any of that stuff," she said. "You know the thing Picasso said: 'We are all partly male, partly female, you have to bring the whole thing together to make a work of art.' I mean, it's only art that matters."

##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그녀의 방식

"죽은 사람들" 처음 그리게 된 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어요. 어머니는 말년에 몸이 무척 안 좋으셨는데, 숨을 거둔 직후에는 얼굴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주 평온해 보였죠. 제 아버지도 사후에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헨리에타는 몹시 화가 난 표장이었죠." 많은 관람객들이 햄블링의 사후 초상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햄블링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은 직후 모습을 그리는 일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신만의 방식이며, 아티스트로서의 특권이라고 여긴다. 마치 음악가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음악을 만들거나,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죽은 뒤에 알려오는 공허함과 아픔을 극복해내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햄블링은 친한 친구나 가족 외에도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를 그리려는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녀가 동성애자인 와일드의 작품 세계에 빠진 게는 일곱 살 꼬맹이 시절 학교에서 그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다. 약 40년 뒤, 햄블링은 와일드를 형상화한 조각을 만들고, 런던 중심가를 지나는 행인들이 조각품을 뺨치 않아서 영미 문화의 거장과 대화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대화라는 작품명을 붙였다. 와일드가 부활한다면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으냐고 물었다. "저는 조용히 있을래요.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입담의 소유자거든요. 그냥 그가 말하게 놔둬 주세요."

## Ways to remember loved ones

"My mother was the first person I drew in the coffin. And she had been quite ill at the end of her life and all the pain had gone out of her face. She looked sort of serene. My father looked quite serene as well. Henrietta looked furious, absolutely furious,"

1 대지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잉글랜드 남동쪽 서퍽(Suffolk)에서 만난 매기 햄블링(Maggi Hambling).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햄블링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Photo by Jack Lee  
2 애인이자 열렬한 후원자였던 햄블링은 언제나 오른손에 담배를 든 채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그녀 특유의 포즈를 취한다. Photo by Jack Lee 3 서퍽에 위치한 햄블링의 작업실 내부. 그녀의 조각 작품이 주로 놓여 있는 공간이다. Photo by Jack Lee 4 'Edge VI'(2016), oil on canvas, 121.92x91.44cm. Photo by Douglas Allfield ©Maggi Hambling



3



4



1 Wall of water, Amy Winehouse(2011), oil on canvas, 91.44x121.92cm, Photo by Douglas Atfield  
 ©Maggi Hambling 2 Portrait of Henrietta Moraes(1998), charcoal on paper, 60.9x48.2cm, Photo by Douglas Atfield  
 ©Maggi Hambling 3 사막에 있는 햄블링의 작업실은 원래 건조 핫인으로 쓰이던 곳으로,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Photo by Jack Lee  
 4 역동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햄블링의 파도 시리즈가 사막 스튜디오에 걸려 있다. Photo by Jack Lee

she said. Many viewers have found her portraits odd or surprising, but Hambling thought it was a privilege for her to grieve someone who was close to her in her own unique way, just like musicians compose music and poets make poetry for the passing of loved ones. The process helps her cope with the pain and emptiness that follows death, she said. Apart from her close friends and family, Hambling made a commemorative sculpture for playwright Oscar Wilde, who, she said, had a great impact on her life. She was gripped by his stories since she was as young as seven years old. Some forty decades later, she created the sculpture of Wilde and named it, "A Conversation with Oscar Wilde," hoping passersby would sit on it and converse with one of the greatest writers in English literature. When asked what she would say to him if he ever came back to life, she responded: "I would keep quiet because he is one of the best conversationalists ever been. I would let him talk."

**'삶의 순환'**

햄블링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다고 했다. "거우 서너 살 땐데, 바닷가에 나가면 바다가 마치 제 친구인 듯 말을 걸곤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더니까 반대로 바다가 제게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2002년부터 역동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파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찾았던 해변가에서 접해온 바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녀에게 파도는 '삶의 순환'을 의미한다. "무심하지만 아름답잖아요. 파도가 해변가로 돌아오며 부서지는 모습, 다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는." 햄블링의 파도 시리즈는 극한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담은 그녀의 최근작 시리즈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는 계기가 됐다.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상징하는 만년설 시리즈는 지난 3월 그녀가 20년 동안 전속 작가로 함께해온 런던의 말보로 파인아트(Marlborough Fine Art)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도 선보였다. 이 전시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난민 위기나 중동 분쟁 등 국제 이슈를 다룬 작품도 공개됐다. 오랫동안 다른 차극히 개인적인 내면 세계에 관한 주제에서 정치적인 주제로 옮겨 간 계기가 궁금했다. "이티스트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섭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삶 속에서 현재 그녀가 가장 관심을 쏟는 이슈는 무엇이고,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그녀는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꺼렸다. 작업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공개하면 운이 나빠진다고 장난스레 대답하면서, 그런데도 자신에게 6개월 뒤에는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 "나도 잘 몰라요 나는 정쟁이 아니라고요." 아마도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일지 모르겠다. 햄블링이 자신의 삶에서 예리함과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어 보았다. 글 이유영 미술 기가

**'Cycle of life'**

Now that she is growing older, Hambling says she prefers to listen rather than talk. "When I was a toddler, three or four, I used to walk into the sea and talk to the sea as if it was my friend. Now, a little bit older, I listen," she said. Since 2002, she has been painting expressive sea canvases, inspired by the seaside scenes she has been observing since childhood. She likens the sea waves to "a cycle of life." "It's terrifying, but beautiful. This sort of return of waves crashing down, going up against, returning again," she said. Her paintings of the sea has led her to create a new painting depicting melting icecaps that addresses current environmental concerns. Her latest paintings, showcased in March at Marlborough Fine Art gallery in London, explored global issues such as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onflicts – a rather political shift from her previous studies depicting personal subjects. When asked what prompted her to shift her subject focus, Hambling said, "I think an artist has to respond to what happens in life." So, what artistic subjects are intriguing her at this moment? She hesitated to give details, saying it's a bad luck to talk about what she's been working on. She did, however, mention there are people who ask her what is she going to paint in the six months and exclaimed: "I don't know! I'm not a fortuneteller." Living in the moment may be what keeps Hambling sharp and passionate to this day. by Wooyoung Lee (art writer)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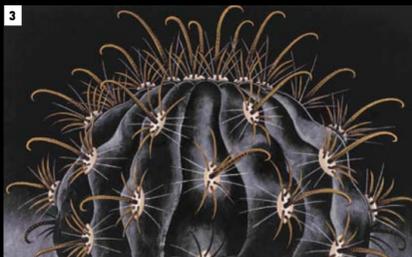


**BVLGARI**  
 ROMA

LVCEA  
 BVLGARI.COM

# Queer Art Now

세상은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그것이 편견을 부르는 색안경일 수도 있지만, 전혀 몰랐거나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경계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진실의 거울일 수도 있다. 퀴어(queer)라는 용어는 한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성 정체성이 다른 여러 그룹을 통칭하는 단어로 어색하지 않게 사회,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계에서 퀴어는 유행처럼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1 자신어름 런던의 유명 갤러리 화이트 큐브(White Cube) 비문지에서 열린 《Dreamers Awake》 전시에 선보인 작품. Jo Ann Callis, 'Untitled'(1976 추정, courtesy of the artist and ROSEGALLERY, ©Jo Ann Callis. 2 Patssi Valdez, 'Portrait of Sylvia Delgado'(early 1980s), hand-painted photograph with ink and pastel, 50.8x91.4cm, Collection of Patssi Valdez 사진 제공 《Axis Mundo》전 3 Martin WONG, 'Feroactus Peninsulae V. Viscainensis'(1997-1998), acrylic on canvas, 76x122cm, courtesy of the Martin WONG Estate and P.P.O.W Gallery. 《Spectrosynthesis - Asian LGBTQ Issues and Art Now》 전시 작품. 사진 제공 MOCA Taipei 4 Julie Curtiss, 'Venus'(2016), acrylic and oil on canvas, 147x81cm, courtesy of the artist, ©Julie Curtiss 화이트 큐브 비문지 《Dreamers Awake》 전시에 선보인 작품. 5 최근까 지 런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는 미술관 역사상 처음으로 퀴어를 주제로 한 《Queer British Art 1861-1967》 전시가 개최됐다. Photo by SY Ko 6 서울의 전시 공간 합정지구에서 열린 퀴어 전시 《리드 마이 릴스》 사진 제공 합정지구

사실 퀴어(queer)라고 하면 물음표를 다는 이가 많을 것이다. 당연하다. 퀴어 아트만 해도 특정한 미술 사조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정립된 개념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굳이 퀴어 작가라는 딱지가 붙는 걸 거라기도 한다. 또 퀴어 감성이 있는 예술가라고 해서 다 흔히 LGBTQ로 불리는 성 소수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영국 영화감독이자 작가 데릭 자먼(Derek Jarman)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퀴어라는 단어는 해방을 뜻하기도(the word 'queer' is a liberation) 한다. 사실 퀴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문화 예술인이 퀴어 작가로 분류되고, 혹은 '퀴어적인'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티스트들은 "퀴어이웃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있나요?"라고 할 정도로 소외되어온 게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 퀴어가 오히려 대세?

국내외를 막론하고 패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퀴어가 아니면 움츠러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인맥도 끈끈한 데다 퀴어 디자이너라고 하면 괜히 더 실력 있어 보이는 후광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미술계에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다. 영국의 한 퀴어 작가는 "퀴어가 자녀에게 인가를 고는 듯해서 이제 난 스트레이트(straight)로 가야 할까 봐"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퀴어가 대세임을 입증하는 전시도 열렸다. 런던의 유서 깊은 미술관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대대적인 퀴어 전시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한 것이다. 단컨트 그랜트, 프랜시스 베이컨 등의 작품을 포함한 전시 《퀴어 브리티시 아트(Queer British Art 1861-1967)》. 1897년에 설립된 테이트 역사상 퀴어를 주제로 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뿐만이 아니다. 대영미술관에서는 소장품을 통해 LGBTQ의 역사를 돌아보는 《Desire, Love, Identity: Exploring LGBTQ Histories》 전시를, 영국 도서관에서는 《Gay UK: Love, Law, and Liberty》라는 작은 전시를 열었다. 이처럼 국공립 미술관들까지 나선 이유는 올해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애 차별법이 폐지된 지 50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리버풀(Liverpool)의 워커 미술관(Walker Art Gallery)에서는 《Coming Out: Sexuality, Gender and Identity》 전시를 지난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었고, 런던을 대표하는 갤러리 화이트 큐브(White Cube) 비문지에서는 《Dreamers Awake》라는 전시에서 여성 작가 50명의 초현

실주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퀴어 아트를 다뤘다. 미국 뉴욕에는 지난 3월 세계 최초 LGBTQ 아트 전문 미술관인 레슬리-로만 뮤지엄(Leslie-Lohman Museum of Gay and Lesbian Art)이 확장 공사를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 LA 현대미술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퀴어 차카노(멕시코계 미국인)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Axis Mundo: Queer Networks in Chicano L.A.》가 오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급세기 최고 가장 반열에 오른 만큼 개인 브랜드가 워낙 강력해 굳이 '퀴어'라고 부르지도 않자면 올해 80세 생일을 맞은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은 그야말로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풍피두 센터를 비롯해 미국의 게티 뮤지엄, 페이스 갤러리 등 유명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빌바오 구겐하임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 변화의 바람이 부는 아시아

그렇다면 적어도 대다수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왠지 더 보수적인 문화가 팽배할 듯한 아시아 지역은 어떨까? 얼마 전 동성혼이 합법화된 대만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만 현대미술관(MOCA Taipei)에서는 지난 9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대대적인 퀴어 전시인 《Spectrosynthesis - Asian LGBTQ Issues and Art Now》를 두 달 동안 개최했다. 대만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22명 아시아 작가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해 아시아 내 LGBTQ 사회에서 패화가 됐다. 이 중에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홍콩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참가한 30대 아티스트 삼손 영(Samson Young) 등 젊은 유망주도 꽤 있었다. 이 전시를 홍보하는 담당자는 "대만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보는 건 이제 상당히 흔한 광경"이라며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진보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퀴어 문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박찬욱 감독의 화제작 《아저씨》를 비롯해 지난 2~3년 사이에 《봄은한 당신》, 《연애의 실용》 등 성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여럿 개봉했으며 김조광수, 이송희, 이력상, 소준우, 이영 등 영화감독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퀴어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퀴어 문화 행사 역시 꾸준히 열리는 추세다. 서울에서는 매년 퀴어문화축제와 퀴어영화제가 열리고, 부산에서는 올해 처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내년엔 탄생 20돌을 맞이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매년 퀴어 라인업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국, 대만 등 성 소수자의 삶과 사인을 다룬 다국적 영화를 소개한다. 국내 미술계의 움직임은 사실 다른 문화 영역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덜한 편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해오며 2013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과 2015년 아시아퍼시픽 트랜스엔블레, 핑자우 아시아 비엔날레 등에 초청된 미디어 아티스트 정은영, LGBTQ 이슈를 그려며 자신어름에 영화 《해더담》 제작비를 기증한 스페셜 포스터를 작업하기도 한 천나현 작가 등이 그나마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지난 5월에는 전시 공간 합정지구에서 《리드 마이 릴스》라는 퀴어 전시가 열렸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이의성, 핏캐스트 퀴어방송의 진행자인 리타, 퀴어 싱어송라이터이자 퍼포머인 아민지하, 그리고 오윤석, 이미래, 이은재 등의 작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퀴어를 이야기했다. 이렇듯 소규모 갤러리나 전시 공간에서 퀴어를 다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국공립 미술관의 문은 아직까지 굳게 닫혀 있다.

그나마 이 정도로 퀴어 문화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은 않았다. 외려 퀴어 문화가 눈에 팔수록 그런 반감이나 당당히 심해지는 현상도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예정이던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지역사회의 반대 부딪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성 정체성이 예술성을 평하거나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적어도 문화 예술 영역을 놓고 보면 말이다. 예술가와 사회운동가의 직지만 꾸준한 행보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글 고성연,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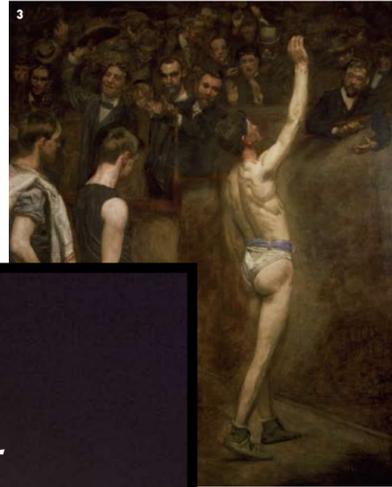
MONTBLANC



## Montblanc Bohème Date Automatic

몽블랑 보헤뎀 데이트 오토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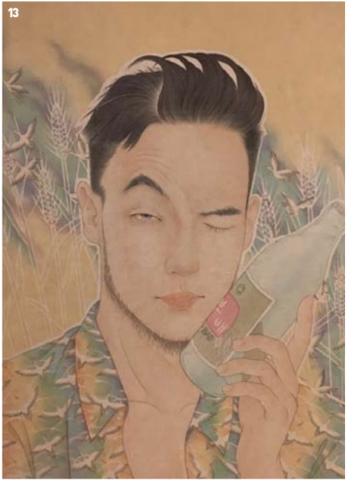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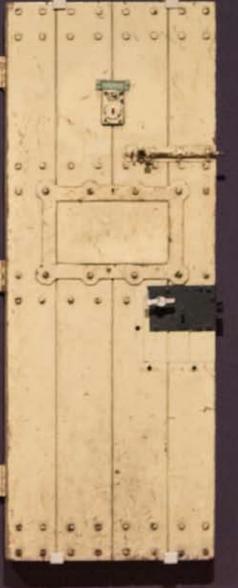




# LGBTQ 현대미술, 역사적 전개와 그 이후

저마다의 서사로 편견을 깨면서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겨온 영국, 미국과는 또 다른 방식과 결을 지닌 한국의 퀴어 아트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래를 펼치고 있다. LGBTQ 현대미술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한국 퀴어 아트의 현주소를 미술 연구자 임근준이 전한다.

20



21



**오스카 와일드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영국식 LGBTQ 서사**

흔히 퀴어(queer)로 통칭되는 LGBTQ(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 미술을 다룬 초기 논객들은 과감하게 르네상스 시대나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성애라는 개념과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널리 유포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동성애의 인격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동성애자라는 어휘 주체로서의 정체화를 위한 기제(機體)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예컨대 게이이라는 용어는 1920년경에야 등장했다). 하지만 1895년 아일랜드의 문필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자신의 동성애를 방증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나선 사건을 되짚어보면 현대적 동성애자로서의 자의식은 이미 19세기 말 유럽 사회중에 널리 형성,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동성애자 문화는 주류 사회의 가치와 심하게 부딪혔다. 영국의 아놀드노브와 운동을 함께한 오스카 와일드와 샵카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의 퇴폐적 유미주의는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를 이겨내지 못했다. 보수적 영국인들은 당시 오스카 와일드와 그의 동료들이 추구한 현대성을 씩아빠진 대륙에서 전염된 외래문화라고 확신했고, 이후 영국 사회는 오래도록 이방기르드를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 미술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영국인들은 이방기르드 예술에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를 투사했단다.

따라서 동성애 방제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의 영국 땅에서 출간되는 관련 연구서나 전시는, 오스카 와일드의 복권(復權)과 명예 회복에 방점을 찍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린 과정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탄압받다가 자살한 비운의 천재 과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 사건을 위시한 온갖 과거사 문제를 포괄할 수 있고, 용감하게 게이 감수성을 표현한 프랭시스 베이컨을 영용시킬 수도 있으며, 영국식 팝아트의 이력을 미국에 전파한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를 미술사의 왕좌에 앉힐 수도 있다. 또 에이즈(AIDS) 암흑기로 불릴 정도로 대우가 겪은 1980년대에 정치적 역병의 가시화와 사회 의제화(議題化)에 앞장선 2인조 작가 그룹 길버트와 조지(Gilbert & George)를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4월 런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개막한 <퀴어 브리티시 아트(Queer British Art 1861~1967)>전이 되겠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국식 서사다.

**동성애 인권 운동을 촉발한 '스톤월 항쟁'**

미국식 서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에 일어난 '스톤월 항쟁'이다. 1969년 6월 28일 새벽,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클럽인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성 소수자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작된 이 소위 사태는 전후 미국 게이 사회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었다(스톤월 인은 지난해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현대적 양태의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간되는 LGBTQ 미술 연구서나 이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역사 회고전도 1969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고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스톤월 혁명 이후 북미 지역에서 전개된 LGBTQ 운동은 커밍아웃을 앞세워 가시화(可視化) 증진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스톤월 혁명 이전의 LGBTQ 예술을 고찰할 때도, 미국인들은 가시성을 키워드로 삼으려고 하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미국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에서 열린 <숨기/찾기>: 미국인 초상에서의 차이와 욕망(Hide/Seek: Difference and Desire in American Portraiture)전이다.

연구를 통해 게이 정체성이 확인된 미국 사실주의 거장 토머스 이킨스(Thomas Eakins, 1844~1916)와 초상화가 존 싱어 사턴(John Singer Sargent, 1856~1925)의 초상으로 사적인 이 전시는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활약했던 인물들 거쳐 전후 현대미술의 영웅인 로버트 라우센버그, 잼슨 존스, 앤디 워홀, 애그니스 마틴 등을 망라했다. 하지만 이 전시에서 단연 강조된 기점은 역시 1969년 스톤월 혁명! 1970년대에 하위문화의 요소를 전유해 하이 아트(high art)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게이 미술가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이 1980년대의 에이즈 대위기에 맞서 싸운 역사 자체를 영웅화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전사의 진짜 주인공은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나 그에 준하는 주변인으로서 주류 사회의 가치 변화를 이끌어낸 키스 해링, 데이비드 워너로버트,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 캐서린 오피 등의 아티스트였다.

**북미 포스트모던 LGBTQ 작가들**

전후 모더니즘에 반발한 북미 포스트모던 1세대 LGBTQ 미술인들은 다양한 기호학 이론과 문화 비평 이론을 동원해가며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전유해 원본을 비평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인 이론으로 대전환의 모멘텀을 일군 이카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사인 이론가 수전 손태그

(Susan Sontag)였다(그의 연인 가운데 한 명이 스타 사친가 애니 레보 비츠였다). 또 퀴어 이론가로 활약한 더글라스 크림프(Douglas Crimp)는 사진술을 이용해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호학적 메타-비평으로서의 다매체 미술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담론과 큐레이팅으로 입증해냈다. 크림프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의 문제적 작가로 떠오른 이카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통하는 신디 셔먼(Cindy Sherman)이다.

20세기 후반기에는 LGBTQ 미술의 편도가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 후반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의 게이 미술가가 언어어 세상을 뜨고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탈냉전 시대가 펼쳐진 데 따른 현상이었다. 미셸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대전제로 앞세운 퀴어 미학의 득세에 힘입어 최후의 왕좌를 차지한 주인공은 쿠버케 이만자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Félix González-Torres)였다. 정치적 개념 미술가들의 협업체였던 그룹 마테리얼(Group Material)에 참여했던 그는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리다십을 발휘한 줄리 엘트(Lilie Ault)에게 정치적 개념 미술의 방법론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제거한 상황에서 퀴어 미학의 논리를 성립시킨' 특이한 전략을 고안해냈다. 여타 LGBTQ 미술가들이 하위문화의 자극적 이미지로 주류 사회를 도발해온 것과는 정반대 행태였다.

2000년대에는 유로파 사회의 유럽에서, 관계 미학의 방법을 활용해 예외적 영역을 개척하는 '포스트 퀴어(post-queer)' 미술가가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올레 아스투볼 비안날레 총감독을 맡기도 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의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과 드로그세트(Elmgreen & Dragset). 전 지구화라는 21세기의 문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상황을 연출해온 이 스킨디나비안 듀오는 미술 전공자가 아닌 자신들의 배경엘름그린은 사진, 드로그세트는 연극 연출가 출신을 일종의 특권으로 삼아 한미미술계 자체를 풍자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웹툰, 그래픽, 동양화...**

**'마이웨이'를 걷는 한국식 LGBTQ 시각 문화**

그렇다면 한국의 21세기 LGBTQ 미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일단 눈에 띄는 경향은 민화다. 특히 웹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득세하는 가운데 게이 민화를 통해 독자성을 확보해나가는 창작자 전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2007년 결성된 이래 퀴어 민화 동인지를 저지하는 아이주어 게이 민화가 그룹인 프로젝트 웅이 있다. 현재 인지도를 쉼안 인기 민화가는 2인. 공화도 출신으로 학승지 민화체를 바탕으로 동성극장을 연재하며 한국식 게이 코미드를 펼치고 있는 변찬(1978년생), 그리고 로맨스는 없더라도 히트 작품으로 알려진 작가이며 순정 민화 장르로 게이 민화를 창작하고 있는 이우인(1983년생)이다. 둘 모두 전시 활동을 병행하고자 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이우인의 출판 기념 시인회에는 많은 게이 팬이 모이기도 했는데,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민화와 유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법으로 회화 작업을 전개하는 전·환(1984년생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정식으로 커밍아웃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테마로 창작 활동을 펼쳐나가는 작가로는 네 번째 정도 되는 젊은 작가다. 변찬, 이우인, 전·환 모두 게이 운동 조직과 에이즈 운동 단체를 위해 꾸준히 창작하며 자선스럽게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점도 앞 세대 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도 나름의 방식으로 창작을 나타내는 그룹이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퀴어 미학을 드러내는 창작을 시도하는 이가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특출한 사례는 햇빛사점을 설립한 디자이너 박철화(1988년생)를 꼽을 수 있다. 국내 1호 퀴어 사진으로 서 LGBTQ 관련 서적, 굿즈 등을 판매하는 햇빛사점은 LGBTQ 공동체의 대안적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최근 '햇빛학교'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했고 '햇빛총서 제1권 (혹시 아를 게이)을 출간하면서 서울 한남동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작은 규모로나마 출간 기념 전시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미학적 차원에서 보다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있다. 홍미림계도 전통 회화의 퀴어한 측면을 전유해 다시 퀴어화를 이루려는 동양화가들이다. 이 계열에서 제일 앞선 행보를 펼친 작가로는 퀴어 어법을 포스트-퀴어의 차원에서 구사해낸 이상재진 동양화가 김화현(1978년생)이 있다. 반면 전통 회화의 어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게이 남성들의 나르시즘을 포착하기 시작한 남성 게이 화가 박근영(1987년생은 그에 대비되는 기대주다.

페니스의 '출아요-미술'로 꽤 유명한 '포스트-포토리얼리스트(post-photorealist)' 화가 정중원(1988년생도 특이한 사례다. 언뜻 시진보다 더 사인 같은 세밀하고 광경한 화면 구성을 보이는, 흔히 접할 수 있는 포토리얼리즘 계열의 그림을 그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이상이다. 조각상으로만 모습이 전해져온 과거의 인물에 사인으로 수직된 피부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가상적 하이퍼리얼리티 초상화를 완성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퀴어-연극적이다. 독자적 문법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중원의 초상 연작은 세익스피어 영국극인 그의 면모와 연관성을 지는 듯하다. 세익스피어 관련 계들이 기존 서사의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은유하는 일을 즐겨온 것처럼 그는 캐릭터의 가짜 혼전성을 구현하는 포토리얼리즘의 어법으로 가시적 정체성의 파파와 그 영향을 탐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국제적 교류와 무관하게 한국식 LGBTQ 시각 문화는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토착적 차원에서 새롭게 씩을 튀기고 있다. 1970년대 후반생과 1980년대생 창작자가 주도하는 이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지, 그리고 1980년대생 창작자는 이에 어떤 식으로 결합하게 될지, 다른 어느 지역과도 다른 한국의 퀴어 미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글 임근준(미술·디자인 이론/역사 연구자)

# 승자 독식 시대, 한국 미술 살아남기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술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무서울 정도로 뚜렷한 생태계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저변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소수의 작가가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몸값이 계속 치솟는 율리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단색화 열풍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은 여전히 패자 진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존재감을 막 알리기 시작한 한국 미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Seoul Auction**  
首爾拍賣

EST. 1998

냉정하게 따지자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은 아직까지는 패자 진영에 속한다. 미술 시장의 작가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 작가들이 해외 시장에서 접하는 위상에 대해서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미술 시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국내 전업 작가의 수를 어림잡아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중 리세일 마켓이 형성돼 있는 작가, 다시 말해 갤러리 전시에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되팔고자 할 때 경매에서 거래 가능한 생존 작가 수는 1백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전업 작가의 0.1% 수준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 1백 명의 작품 낙찰 가격이 경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금액(낙찰 금액 총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단 10명 정도의 작가가 90 이상, 그러니까 9할 이상 차지한다. 사실상 리세일 마켓이 형성돼 있는 작가 비중은 전업 작가의 0.01%에 불과한 셈이다.

시야를 넓혀, 글로벌 마켓 동향을 보자. 현대미술 작품(1945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 상반기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낙찰 금액은 총 27억달러(약 3조원)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었을까? 이러한 미술 시장의 거래 수치를 보면 국가별, 성별, 매체별, 시조별 매우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의 낙찰 금액을 차곡차곡 더해 이 총액이 나왔을 것이라 막연히 추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경매 결과를 집계하는 아트넷(artnet)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 25명의 작가가 올해 상반기 현대미술 경매 낙찰 총액의 5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5월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작품 무게가 1억1천50만달러에 팔려 화제가 된 장 미셀 바스키아(1960~1988)를 비롯해 앤디 워홀(1928~1987),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 등 25명 작품의 낙찰 총액이 12억달러(약 1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시장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내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더욱이 시장 논리만 놓고 냉정하게 따지자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미술은 아직까지는 패자 진영에 속한다. 미술 시장의 작가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 작가들이 해외 시장에서 접하는 위상에 대해서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 율리 현상의 원인, 투자 > 감상?

왜 미술 시장의 수요는 점점 더 일부 작가에게 집중될까? 가장 큰 원인으로 미술 시장의 부침을 통해 겪은 학습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이를 짚어보기에 앞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미술품 컬렉션을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새로운 게 없지만, 그 수요 기반이 점점 더 투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주지할 만하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의 2016년 보고서(Art & Finance Report 2016)를 보면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의 주요 컬렉터로 선정된 94명을 대상으로 a. 투자 목적 b. 감상의 목적 c. 투자+감상의 목적 등 3개의 보기를 주고 '왜 미술품을 사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수한 감상의 목적으로 산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2014년 40%에서 2016년 22%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감상의 목적이라고 밝힌 비중은 같은 기간 53%에서 7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자산

을 관리해주는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고객들이 미술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한 비중이 2011년 22%에서 2016년 73%로 대폭 높아졌다.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관점에서 미술 시장을 바라보게 만드는 동인은 무엇일까? 오늘날 미술 시장을 둘러싼 여러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미술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발을 들여놓는지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금융자산과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는 '분산 기능'이다. 실제로 미술 시장의 다우 지수로 불리는 메이-모세 인덱스(Mei-Mose Index)에 따르면 지난 50년간(1965~2015) 미술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관계수는 0.001로, 거의 제로(상관계수는 1과 -1 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정(+)의 상관성이, -1에 가까울수록 부(-)의 상관성이 높다는 의미) 수준의 수치를 보인다. 미술 시장의 경기 민감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금융자본 성격의 자금이 미술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의 상관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런 경향이 여실히 드러난 시기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다. 당시 주식 시장의 붕괴는 미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술 시장의 모든 작품이 분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때부터 미술 시장의 외적 환경을 버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미술 작품은 그야말로 최고 작가의 최고 수준 작품밖에 없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 최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몰리고 있고, 비싼 작품이 더 비싸지는 현상은 바로 이 같은 맥락이 반영돼 있다. 이러한 성격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현상은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일부 작가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의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최근 시장을 이끄는 컬렉터들이 현대미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정 부분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미술 시장에서 중국이나 중동 컬렉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떠오르는 유망 작가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작가 위주로 작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작가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 승자와 패자의 자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경직된 생태계

승자 독식 사회가 무서운 이유는 승자와 패자의 자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승자 독식 사회>의 저자 로버트 H. 프랭크는 승자 독식 시장의 특징을 절대적인 능력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능력 차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미미한 능력 차이가 엄청난 소득 차이로 이어지며 고착화된다는 점, 두 가지로 요약한다. 100m를 10초에 뛸 경우 누구에게나 금메달을 준다면, 이는 절대적인 능력 차이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처럼 절대적인 능력 차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가? 9.9초와 10초 사이의 0.1

초라는 차이가 메달 색깔을 결정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영원히 기억되고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바로 잊힌다. 나아가 인기 있는 금메달 선수는 수많은 광고 계약을 하며 소득을 올리고, 이를 자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은메달 선수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됨은 물론이다. 어느새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미술 시장만큼 상대적인 가치판단이 이뤄지는 곳이 있을까?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보다 낫다고 할 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수많은 미술사가, 비평가, 갤러리스트, 미술 관 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미술 작품 자체가 그 어떤 계량적 기준도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치판단은 분명히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윤곽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변동성을 줄이고 싶은 투자 수요적인 측면이 강할 때는 '새로움'을 향한 모험을 감행하는 횡수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 과연 한국 미술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한국 미술, 승자 독식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평가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사실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 현대미술이 검증될 거처였는데도 상대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과 이제 막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승자 독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해도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 미술 시장은 태생적으로 가치판단이 상대적인 생태계라는 점 역시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위치 전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미술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것'의 등장이나 분절적으로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이런 화풍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미술관과 컬렉터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날 미술 환경에서 한국 현대미술 고유의 영역을 제대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미술을 이해시키고자 할 때 최소한의 진정성은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원이던 작품이 7천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그저 3천만원의 가격이 빠진 게 아니다. 시장 가치가 '30%' 하락한 것이다. 시장 관점에서 볼 때 10억원이던 작품이 7억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꽤나 큰 가격 변동 폭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가격(하락)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은 국내 컬렉터들이다.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미지로 어필하기보다 작품의 개념이 경쟁력이 되는 현대미술품의 경우 컬렉터들이 특정 작품에 대해 확신을 갖기까지 걸리는 이른바 학습 기간이 짧지 않다. 세계적 수요 기반을 갖춘 작품은 대부분 이 학습 기간을 버티준 자국 컬렉터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국내 컬렉터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글 최윤석(서울옥션 상무)

## 문화 예술 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70 대구 스피릿을 되돌아보다

'도시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에 도시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예술은 결코 순위나 기록 싸움을 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지만,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도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계 도처의 중소 도시에서 크고 작은 담론이 펼쳐지는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사례가 꽤 많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미술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비엔날레가 전국에 걸쳐 열리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수준을 견비한 선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비엔날레 과잉'으로 외려 비난까지 받는 현실, 어떤 타개책이 필요할까?



24

올해 유럽은 온통 '아트'로 달아올랐다. 아트 바젤(Art Basel)과 카셀 도쿠멘타(Kassel Documenta),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Münster Skulptur Projekte),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리옹(Lyon) 비엔날레와 이스탄불(Istanbul) 비엔날레 등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꼭 유럽을 방문해야 할 큰 행사가 있었다. 게다가 5년에 한 번 열리는 카셀 도쿠멘타와 10년마다 열리는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겹치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여기에 역시 시기가 겹치는 아트 바젤, 베니스 비엔날레를 아우르는 미술 여행을 워낙 많은 이들이 떠나는 바람에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지식 여행을 따 올해를 '그랜드 아트 투어의 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트 바젤과 베니스 비엔날레는 워낙 유명해졌다지만, 아마도 미술에 관심이 없다면 카셀과 뮌스터라는 도시 이름조차 생소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이 중소 도시들은 어떻게 국제적인 예술 도시가 된 것일까?

### 작지만 강한 문화 예술 도시들

독일 중부에 자리한 카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 대부분이 파괴되고 인구 5분의 1만 살아남은 아픔을 지닌 도시였다. 이런 상흔을 치유하고 1930년대 나치에 의해 퇴폐예술로 낙인찍힌 독일 현대미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955년 카셀 예술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아르놀트 보데(Arnold Bode)가 도쿠멘타를 창설했다. 이후 도시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고, 이제 5년마다 도쿠멘타가 열리는 해면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에 1백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다녀간다. 독일 북서부의 작은 대학 도시 뮌스터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조각 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이 행사의 탄생 스토리가 흥미롭다. 1975년 영국의 추상 조각 대가 헨리 무어의 작품이 설치되자 뮌스터 시민들은 '울퉁불퉁한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고, 이를 계기로 공공 미술에 대한 담론이 썩었고, 결국 시민들에게 현대미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아이의 조각 미술전을 기획했다. 1977년 이렇



3

게 작은 공공 프로젝트로 시작된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이제 세계적인 현대미술 축제로 여겨진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백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비엔날레의 시초다. 과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관광 명소인 베니스는 상업주의가 일찌감치 자리 잡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국제적인 예술 행사가 꽃피우기 알맞은 환경이었다. 비엔날레 덕분에 베니스는 아름답지만 낡은 고도(古都)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아트 도시로 거듭났다. 프랑수아 리옹의 경우 요즘은 미식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1991년 리옹 비엔날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왔다. 1970년대 리옹의 미대생 10명이 무색 도시를 변화로 장식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촉매제로 작용했다. 아시아에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는 '예술의 섬'으로 지구촌 곳곳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나오사마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에서는 상업 메카인 상하이에서 2019년 개관을 앞둔 풍뎬두 미술관 분관 외에 이미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가 들어서 역동적인 아트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Focus



2



4

### 문화 예술 행사가 범람하는 한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제외하면 카셀, 뮌스터, 리옹, 나오사마, 심지어 베니스조차 그 나라의 제1 도시가 아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파리, 런던, 뉴욕처럼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지방의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역사와 환경을 극복하고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성장했다. 한국은 모든 문화와 산업이 수도 서울에 몰려 있는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물론 지방 분산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요 행사는 대부분 서울에 포진해 있다. 그나마 '비사울'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 행사로는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가 있다. 1995년 광복 50주년과 당시 문민정부가 지정한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의 부흥이라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창설한 행사다. 도시 인프라가 부족했던 광주는 애초에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지방 도시를 키운다는 개발 의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 정신을 기린다는 명분에 힘입어 개최지로 결정됐다. 2005년에는 자체 비엔날레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생겼다(즉수 해에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와 교차



5

1 지난 7월에 열린 강원대구현대미술제에 출품한 고관호의 Big Men(2017). 사진 달성문화재단 제공. 2 비디오 아티스트 허광식 작가의 'Reality Illusion'(2012). 사진 달성문화재단 제공. 3 서세옥, 두 사람(2004), 덕중아트스튜디오, 39.8x45cm,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4 1975년 《35/128》 그룹전에 참여한 황태갑, 황현욱, 이도훈, 이원희, 이명희, 강호은, 김기홍, 최병소 작가. 사진 갤러리 신라 제공. 5 석고로 신체를 캐스팅하거나 유리에 신체를 접촉시켜 흔적을 표시한 작품. 강영진, '1978-10-2'(1978), 사진, 석고, 250x200x80cm, 사진 갤러리 신라 제공. 6 2017 대구 아트 페어에 참가한 독일 보데 갤러리(Bode Galerie) 부스 모습. 7 정영식, 무제(1988), 159x127cm, 사진 갤러리 본도 제공.



6



7

로 흡수 해에 개최된다). 역사로 보자면 광주보다 더 오래된 부산 비엔날레가 있다. 부산 비엔날레의 출발은 1981년 개최된 부산 청년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비엔날레이자 지역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띤다. 2011년부터 부산 비엔날레에서 분리된 바다미술제가 흡수 해에 열려 사실상 부산에서는 매년 미술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아트 부산과 부산 국제 아트 페어도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비엔날레라고 불리는 행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비엔날레를 발판으로 지방의 중소 도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한다. 올해만 해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시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등이 열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참가자와 관람객 수와 상관없이 질적인 상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비엔날레가 운영 조직의 폐쇄성과 지역성 때문에 예술적 거대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정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아트 비엔날레의 구조적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입장권 판매, 지역 작가와 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도 매년 떠오르는 이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광주 국제 아트 페어의 경우도 전체 부스 중 대부분이 지역 작가들에게 판매됐고, 국내외 다양한 갤러리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국제라는 이름에 불이기가 무색했다는 평을 얻었다.

### 아티스트들의 진정한 보고, 대구

'국제라는 타이틀을 단 행사의 유무를 떠나 '자산 가치'로 보면 사실상 한국 근현대미술의 보고는 대구다. 광익식, 김구림, 이강소, 최병소 등 한국의 이방가르드 미술과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들 중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 출신이 많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구는 17세기 정산도를 관할하던 경상감영이 설치되고 일제강점기인 1905년에 경부선 철

리 전신) 같은 갤러리가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공갤러리(리안갤러리 전신)와 인공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수화랑에서 한국 최초의 아트 디렉터라 불린 황현욱이 1988년 개관한 인공갤러리는 최초의 현대미술 전문 화랑으로, 대구 현대미술을 주도했다. 대구는 지역 작가들로 뭉친 집단보다는 작가 개개인의 색이 강한 곳이다. 최초의 추상화로 간주되는 파란'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주경 화백은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광복 이후 대구에 정착해 지역 미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얼마 전 계명대 대명캠퍼스 국제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연 정점식 작가는 1960년대 초반 계명대에 미술학과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화강미술관과 갤러리 본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의 전시를 연 것만 봐도 대구 화단에서 차지하는 정점식 작가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원대구현대미술제의 태동을 주도한 작가들 중 한 명인 설치미술가 김영진(1946년생)도 중요한 인물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뒤늦게 작품이 등록됐지만 그는 1970년대부터 비디오, 설치, 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 1세대 여성 행위 예술가 정강자, 백남준 이후 해외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김수자, 서도호 작가의 부친인 동양화가 서세옥 등도 대구 출신이다. 이들이 각자 성장할 수 있었던 때는 1970~80년대 거리낌 없는 비평과 논쟁 문화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당시 대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작가들은 잔뜩 긴장한 채 준비해야 했다는 후문도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지방마다 현대미술제가 붐몰을 이뤘다. 미술제가 유행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전시 형태나 내용, 참여 작가 등 여러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이강소 작가는 5회 대구현대미술제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문제를 모색하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대구에서는 일본과의 교류 전시가 종종 열렸다. 화랑과 화단이 발달했으니 당연할 수도 있지만, 대구는 남달리 두꺼운 컬렉터층으로도 부러움을 사왔던 도시다. 이제는 1970~80년대 컬렉터들의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면서 한층 '글로벌한 감각을 지녔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매 회사들이 눈여겨볼법하다. 실제로 2007년 대구MBC가 K옥션과 업무 제휴를 맺어 옥션M을 설립한 적이 있고, 올가을 서울옥션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구의 문을 두드렸다.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물론 오늘날의 대구가 혁신을 주도하고 한국 미술 사조를 이끈 1970년대처럼 빛나고 있지는 않다. 지역 미술계는 활력을 잃었다. 그래도 1979년 5회를 끝으로 맥이 끊긴 대구현대미술제가 2012년 달성문화재단의 주도로 강원대구현대미술제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는 점은 반갑다. 아직은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지만 지역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교류를 북돋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대구미술관이 개관한 지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풍부한 DNA를 지닌 도시답게 수준급 전시를 많이 기획해오면서 지역 시립미술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는 2020년께는 국보급 시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상설 전시관을 열 예정이다. 문화 예술 사랑이 자국만 대구의 풍토나 간송의 위상을 볼 때 고무적인 일이다. 몇 년 전 이유환미술관 건립이 추진되다가 어그리진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고 보면 대구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 도시들은 갈 길이 멀다. 아트 페어와 비엔날레가 동네 축제 수준이나 예산 낭비가 심한 '무늬만 국제 행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작가들의 활발한 연대, 심도 있는 미술 비평과 담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화단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거의 반세기 전인 1970년대 대구의 정신이야말로 작금의 한국 미술계에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글 **김민서**

### 무엇이 달랐나? 화랑의 활약과 독보적인 컬렉터층

서울 다음으로 화랑이 많은 대구에는 일찍부터 화랑이 발달했다. 부산보다 15년가량 앞서 화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수화랑과 대구백화점화랑(대백프라자갤러

2017 Art+Culture STYLE CHOSUN

25

# 선의 탐구, 빛의 시간

수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여백의 미를 현대적 물성으로 재현해내는 자신만의 입체 회화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남춘모 작가. 부산시립미술관 김선희 관장이 내년 대구미술관에서 열리는 회고전, 뉴욕과 파리의 개인전을 준비 중인 남 작가를 거창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사꾼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낸 남춘모 작가가 구불구불한 밭고랑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적 선(線)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광목을 단단하게 굳혀 작은 조형물을 만들고, 이를 캔버스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선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빛을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볼륨을 주는 것이다. 이는 건축적 형태의 추상화이면서, 드로잉이자 조각 작품이기도 하다.

**김선희** 국내의 미술 관계자와 수집가에게 포스트 단색화 작가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남춘모 작가의 작품과 단색화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춘모 단색화 작가들은 미술계 선배이고, 저와는 시대 배경부터 다른 세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면서 단색화 작가의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단색화 전기 작가의 독재나 일제 치하의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정신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 감성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김선희** 1970년대 단색화 운동이 일어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단색화 작가들도 각자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지요. 세계 시장에서 단색화가 호평받는 건 기쁜 일이지만, 다른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주목받기를 기대합니다. 남춘모 추사 김정희와 경제 정선의 작품에서부터 우리나라 단색화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고, 수행하고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제 작품과 단색화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시대 상황과 작업 방식은 전혀 다르니까요.

**김선희** 반복 작업을 통해 정화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마당을 매일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은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혼란하고 정화하기 위해서지요. 이렇듯 젊은 작가들이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꾸준하고 부지런한 작가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춘모 다행히 어느 나라에서든 작업의 밀도가 있고, 수고가 옛보이면 인정해줍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수행하고 시간을 증첩하는 제 작업을 알아주는 미술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크게 생각합니다.

**김선희** 지금과 같은 부조 회화를 만든 것은 언제부터인지요? 어떤 평론가는 프랭크 스텔라의 초기 줄무늬 회화와 비교 분석을 하기도 했지요. 남춘모 1990년대는 드로잉에 몰두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선대 작가들이 보여준 여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본연의 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대의 물성으로 선대 작가들이 보여준 여백의 미를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작업실로 쓰던 폐교의 천장에 매단 꾸불꾸불한 선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감탄했지요. 작품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서 ㄷ(다근) 자 형태의 작은 기둥을 이용했는데, 그 입체 형상 때문에 시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적 요소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지만, 회화에서 군더더기를 제외하고 입체화한 선 하나로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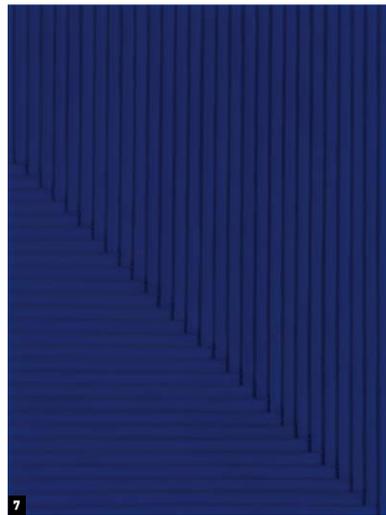
**김선희** 남 작가의 작품은 입체 회화라고 불립니다. 작업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남춘모 광목을 잘라 사각형 각목에 고정하고 폴리코트(수지)를 바른 후 단단하게 굳힙니다. 바짝 마른 후 뜯어내면 ㄷ 자 형태의 작은 기둥이 완성됩니다.



1



6



1, 2 김선희 관장이 새로 단장한 남춘모 작가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3, 4 대구시립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일 신작이 걸려 있는 아틀리에. 캔버스 위 입체 나열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5, 6 라인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남춘모 작가의 작품은 광목을 단단하게 굳혀 작은 조형물을 만들고, 이를 캔버스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7 'Beam 2016 16-71'(2016), mixed media on canvas, 160x120cm.

다. 이 볼록한 빔(Beam)을 캔버스 위에 차곡차곡 붙이고 여러 번 채색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초창기에는 별도로 채색을 하지 않고 광목 자체의 색깔을 작품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뒤에는 아크릴 판을 댔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 작품을 크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캔버스 작업은 크기도 키울 수 있고, 아크릴물감으로 여러 번 채색하기 때문에 회화성이 강조됩니다.

**김선희** 최근 작품을 보니 원숙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선으로 캔버스에 나열하던 작은 기둥의 형태가 곡선으로 변했고, 강렬한 색채가 돋보입니다. 화려한 오방색을 보니 평소 말수가 적은 작가의 내면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남춘모 요즘 캔버스 작업을 통해 회화성을 발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때로는 색채감각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웃음) 파란색,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단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 작품은 입체 회화이기 때문에 빛에 따라 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이지요. 숲속의 나뭇잎 색이 아침부터 밤까지 변하는 것처럼, 작품 색깔이 계속 변화합니다.

**김선희** 캔버스 위의 입체적 나열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한 계기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남춘모 영양 지역의 고추와 담배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땅에 검은 비닐을 덮었는데, 바람이 불면 비닐이 펠릭펠릭 휘날렸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 다시 가서 보니 그런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저의 새로운 곡선 작업은 이러한 어린 시절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골 마을의 구불구불한 밭고랑이 검은 무광택 비닐에 싸여 햇빛에 반짝이는 풍경이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입체 회화의 시작을 이끌고, 최근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김선희** 이전에 농부와 미술가가 비슷하다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춘모 네, 작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감상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 이전의 시간과 결실을 안겨준 작업에 쌓인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술가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작업합니다. 저 역시 요즘 농부들의 경운기 소리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갑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계산하며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 입체적 작품은 완성돼서 벽에 걸렸을 때, 빛의 변화와 만나 그림자까지 드리워져야 비로소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 남 작가의 작품은 최근 아트 파리에 완판되고, 베를린의 안도 퍼인 갤러리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까? 해외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춘모 처음 유럽 미술 시장을 노크한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방대학 출신 작가를 인정해주지 않던 시기였기에, 제 근원을 찾기자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은 세계 표현주의 미술의 뿌리와 같은 곳이고, 뉴욕이나 파리에 거주하다 다시 독일로 가는 미술가도 여전히 많으니까요. 백남준 작기도 1963년에 독일 한스 마이어 갤러리에서 최초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선 몇 개로 공간을 울림을 준 선대 작가들에게 물려받은 자부심을 갖고 독일에서 공정하게 작품을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김선희**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남춘모 유럽 활동이 늘어나면서 5년 전에는 쾰른에 스튜디오를 두었고, 작품을 본 미술 관계자와 컬렉터가 우리나라 아틀리에에도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거창에 아틀리에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내년 1월에 열린 대구미술관 전시 도록 서문도 쾰른의 루트비히 미술관 관장이 써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견 작가지만, 유럽에서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젊은 작가군으로 평가받습니다. 뉴욕과 파리의 개인전 일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아, 그리고 보니 대구미술관 개인전 준비 때문에 아주 분주하겠군요. 남춘모 미술관 전시는 작가에게 새로운 모티브가 됩니다. 갤러리 전시보다 규모가 크고, 공익적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고전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어디까지 기존 예술 세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대중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제게 큰 영감을 준 밭고랑의 구불구불한 선과 검은 비닐을 씌운 풍경을 담은 비디오프 상영합니다.

남춘모는 일관성 있는 자세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작품으로 드러나는 작가다. 반복적 탐구와 시색을 통해 인간 본연의 깊은 감수성을 수습하지만 아름답게 작품에 담아낸다. 구도자와 같은 남 작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정리·글 이소영



3



4



Conversation

# GRAND WEAVERS



# 경계, 그사이를 잇다

## PROLOGUE

- 서구적 사유 체계에서 건뎠던 현실 너머 형이상학적 차원에 있다. 실 건너편에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다. 반면 동양적 사고에서 건러란 곧 '도(道)'의 개념이다. '길'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처럼 일상 한 가운데에서 겪는 실천적 경험의 차원이다.

- 이 같은 상반된 의식 구조처럼, 동서양의 미학적 태도 역시 대조적이다. 특히 서구 추상미술이 구성과 추상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 아래 강박적으로 '사물(자연) 너머의 본질을 발견한다'는 방향을 탄다면, 우리의 추상미술은 '사물(자연)의 본질을 발견한다'는 것에 가깝다. 이는 자연(自然)을 대상의 외형에 내재된 질서인 동시에 그 자체를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해하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 최근 세계 미술 시장에서 아시아 추상미술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추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서구식 추상의 '대안'이자 '확장'으로 여겨질 만큼의 사유와 여취를 갖춘 데 따른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행위의 반복성을 통한 신체와 물질의 만남, 거기에 동양의 자기 수행과 정신성이 어우러진 한국적 추상미술은 서구의 시각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추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굳이 단색화의 틀에 갇힐 필요 없이 말이다.

이번 자면 전사에서 소개하는 작가 5인-이강소, 이배, 최병소, 하중현, 오수환-은 비움과 채움, 소멸과 생성, 인위(人爲)와 무위(無爲), 물질과 행위 등 상반된 요소를 결합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장인적 예술가들이다. 마치 베풀 위에서 북을 위아래로 옮기는, 반복적이지만 숙련된 작업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천이 탄생하듯, 오랜 시간에 걸쳐 깃든 작가 고유의 질서가 만들어낸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적 추상의 미학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보자.



虛(Emptiness)-140151(2014), acrylic on canvas, 259x194cm, courtesy of the artist, image provided by Wooson Gallery

## 이강소 Lee Kang-So

### 텅 빈 충만

- “단지 물고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으나 이 중에 또한 파도가 있네.” 중국 현대 산수화가 리카린(李可染, 1907~1989)의 말처럼 동양화에 서 여백은 서로 다른 자연물 사이의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며, 기실 물이거나 구름이거나 안개 등 또 다른 사물의 공간이다. 이는 그림에 그려진 산과 강물, 숲의 존재를 더욱 부각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여백은 관람자로 하여금 각자 생각하는 공간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공간의 이동을 유도한다. 따라서 여백은 결핍으로서의 빈자리가 아니라 채워진 빈자리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림 안과 밖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설정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강소(1943년생)의 작품명, '해(Emptiness)'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해(虛)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텅 빈 충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선(線)은 오리들의 조용한 수영(游泳)을 담은 물(乙)의 희미한 흔적과 대비를 이루며, 여백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사실 그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오리와 사슴, 배 등으로 인식되는 여러 모티브는 관람자로 하여금 개개의 감각적 경험을 일깨워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단초에 불과하다. 더불어 짙은 어두움, 혹은 그윽한 안개가 깔린 듯한 화면의 여백은 서구 추상 표현주의자와 같은 개인의 열정이나 주관의 표현이 아니라, 작품에서 거리를 두고 상상하게끔 유도하는 유동적 공간이다. 마치 그릇으로서의 쓰임새는 그릇 가운데를 비움으로써 생가듯, 이강소의 여백은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운(氣韻)의 현현(顯現)이자, 열린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다.

虛(Emptiness)-09092(2009), acrylic on canvas, 194x259cm, courtesy of the artist, image provided by Wooson Gallery



# 이배 Lee Bae

## 박제된 시간, 물질과 기억의 초상

- 검은 안료를 가득 머금은 붓으로 특특 짝이 내린 듯한 점과 선은 미색 배경과 대비되면서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준다. 그러다 만 듯한 미완의 검은 형태는 허공을 빠르게 훑고 지나간 붓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한다. 특히 농담의 변화 없이 검은색으로 팽팽하게 가득 차 있는 필선은 블랙홀 같은 위용을 발산하는데, 이에 이끌려 작품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 순간 가침없이 휘두르는 일필휘지의 순간이 급속 냉동된 듯 육화(肉化)된 검은 흔적을 마주하게 된다. 이배(1956년생)는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숯이라는 재료를 통해 동양화적 기법과 느낌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작가는 숯가루 섞은 검은 물감으로 형태를 그린 후 일정한 두께의 투명 아크릴 미디어(medium)으로 화면을 덮고, 다시 검은 세필 로 그 위에 겹쳐 그리는 과정을 반복해 은은한 미색의 마티에르를 구현한다. 이때 화면에 반복된 여러 겹의 층위 사이로 빛이 들어가면, 화선자가 먹을 머금었을 때와 같은 깊이감과 번짐 효과가 드러난다. 이는 밀랍에 신체적 제스처와 그 행위의 시간성을 가동으로써 현재의 시간에서 분리된 영원한 기억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주의 거대함을 떠올리고, 박제된 나비에서 자유의 날갯짓을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배의 작품을 바라보며, 굵고 검은 획을 따라 흐르는 선적인 움직임과 그 위에 파치는 짙은 묵향과 같은, 현실의 물질적 흔적을 뛰어넘는 추상적인 인상을 함께 떠올린다.



Untitled(2016), acrylic medium with charcoal on canvas, 162x13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Wooson Gallery,  
Photo by Park Myung-Rae



Untitled(2008), acrylic medium with charcoal on canvas, 130x9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Wooson Gallery  
Photo by Park Myung-Rae



Untitled(2014), paper, ballpoint pen, pencil, 81x700x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mage provided by Arario Gallery

# 최병소 Choi Byung-So

## 소멸과 생성의 전이적 공간

-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순간 이후로는 점차 모든 것을 잃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는 남겨진 자들의 가슴속에 깊고 검은 상처를 낸다. 산고의 고통처럼 축복은 상처와 고통과 함께 찾아온다. 최병소(1943년생)는 지난 40여 년간 화면 위에 선을 그으면서 텍스트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소멸과 생성, 물질과 행위, 현실과 초월 사이의 충돌과 긴장의 흔적, 전이를 한재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타버린 재처럼 표면이 부서질 듯 군데군데 찢겨진 그의 작품은 수천 혹은 수만 번의 연필과 볼펜의 선긋기로 뒤덮인 신문지에 다름 아니다. 종이가 얇아지다 못해 찢어질 때까지 진행된 반복적인 행위는 중국에는 선의 흔적을 감추고, 마치 연소된 나무껍질이나 금속성 광물질에 가까운 듯 보이는 독창적인 표면을 새롭게 탄생시킨다. 사실 신문지 작업의 출발은 1970년대의 억압된 분위기 외 무관하지 않다. 당시의 언론 탄압과 신문 검열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읽을 수 없는 신문, 내용을 알 수 없는 잡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선긋기와 지우기 작업은 작가가 처음에 의도한 의미나 가치를 점점 비워내고, 물아일체의 자기 수양 차원에 이르렀다. 최병소 작업의 정체성은 자신의 몸에 각인된 자연의 질서, 즉 소멸과 생성의 순환을 극도의 인내와 긴 시간의 노동 행위를 통해 발현하는 데 있다. 마치 수억 년 넘는 세월 동안 물과 바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반복적인 풍화작용을 통해 정연한 천연 조각물을 지상에 만들어놓았듯이 말이다.



Conjunction 85-23(1985), oil on hemp cloth, 194x26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 오수환 Oh Su-Fan

### 무위(無爲)의 풍경

• 바람과 물, 하늘과 대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놓고 '완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사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은 높아지고 산과 들은 울긋불긋해지듯,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 모습을 달라해간다. 대지연의 변함없는 순환적 질서 속에서 변화무쌍함은 그 자체로 미완(未完)이지만, 생(生)을 향한 기운(氣運)으로서 완성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술에서 느끼는 미적 감흥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남겨진 형상이나 양식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창조 과정, 일련의 경험 또한 예술이다. 20세기 미학자 요제프 갠트너(Joseph Gantner, 1896~1988)는 "예술의 본질은 완성된 것, 즉 '형상(figuration)'이 아니라 '미완성적인 것, 즉 '선-형상(pre-figuration)'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언어 이전, 또는 그림 자체 이전의 상태를 추구하는 오수환 작가(1946년생)는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몸이 가는 대로 붓의 흔적을 화폭에 담는다. 그의 화(畵)은 캔버스 위에서 힘 있게 솟구치며 위로 뻗어가다가도 갑자기 사선을 그리며 아래로 곧두박질하고, 완만한 흐름으로 물결을 타듯 떠다니다가, 바람에 흩날리듯 어지럽게 흩날린다. 때로는 물감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는 등 그리기 작업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캔버스 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에 시작과 끝이 없고 거기에 어떠한 의도가 내포돼 있지 않듯이 오수환의 무나치고 흐트러진 선의 흔적은 미완이 준비안어진 몸의 기억, 우연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수십 장의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을 통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표현의 욕망과 대상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는, 수행에 가까운 그의 작업은 지난 40여 년간 매일같이 계속되어왔다. 그림으로써 그의 작품은 무언가를 그리면서도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어떠한 의미도 지지 않는 무위의 풍경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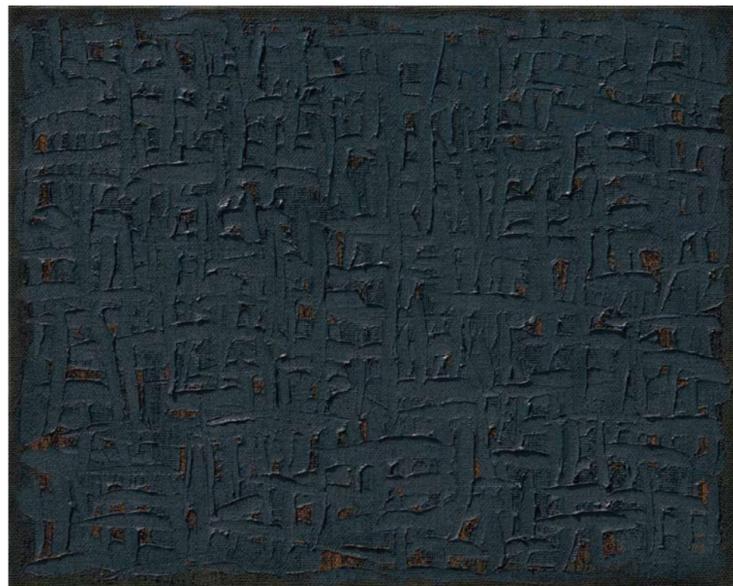
Dialogue(2016~2017), oil on canvas, 227x18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na Art, image provided by Seoul Auction



## 하중현 Ha Chong-Hyun

### 물성(物性), 물질과 행위의 변이

• 20세기 미국 추상미술계의 우상이었던 작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는 자신의 회화 작품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보는 것이 보는 것의 전부다(What you see is what you see)"라는 말을 했다. 이는 회화가 캔버스 표면에 제시된 형태와 색채의 물리적 요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작가 행위의 흔적과 주관적 감정, 생각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화면 위 형태 배치와 구성, 물감의 색상은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하중현(1935년생)의 작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거칠고 성긴 울로 짜인 마대의 천 틈새로 물감이 울울이 배어나오며 형성된 독특한 마티에르를 보게 된다. 이는 겉쪽하게 갠 물감을 마대 천 뒤에서 밀어 넣음으로써 물감으로 가득 찬 캔버스 앞면에 최소한의 행위(붓질)를 통해 완성된 것이다. 그의 '접합(接合)' 시리즈는 단순한 질료적 접합이 아니다. 물감을 마대 뒷면에서 앞면으로 흘러보내고, 다시 앞쪽에 스며 나온 물감을 마대에 누르는 신체적 행위를 통해 물성(物性)의 발현을 이끄는 물질(물감)과 신체적 행위의 접합이다. 그 흔적은 어떤 사물의 모습도 연상시키지 않지만, 그렇기에 외려 물질의 소박한 자연적 상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대개 암버(umber) 계열의 황색과 오크(ocher) 계열의 청색, 그리고 중간색인 화이트를 택하는 하중현의 작품은 마치 자연변동 이전의 지구 색깔을 떠오르게 하며, 캔버스 위에서 물성이 현현하는 과정은 지진으로 분출된 지하의 암석이 깨져 흩어 되는 지구의 형성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또 인간적 스케일에서 보면 도예가의 손과 흙의 관계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신체적 행위와 물질, 물성의 발현은 먼 과거에서 이어진 원형적 결합이자, 인간과 물질의 근원적 관계에 대한 기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Conjunction 94-64(1994), oil on hemp cloth, 80x1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 할리우드 시스템을 닮아가는 아트 생태계 미술 한류를 꺾어야만 하는 이유

미술 한류가 가능할까? 미술 생태계도 점점 규모와 시스템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구도에서는 작은 내수 시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미술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시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온 필자는 '동시대 미술에서 한류가 가능한가'보다는 한국의 동시대 미술에 한류식 논리와 시스템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묻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말한다.

컨템퍼러리 아트(contemporary art), 즉 동시대 미술에 대해 한류 가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기가 있다. 왜일까? 첫째, 한류는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영화 등 상업적 대중문화에서 성립되는 개념인데, 동시대 미술과 같은 고급 예술을 상업적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둘째, 한류처럼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국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동시대 미술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을 상업적 성공과 결부하는 관점은 그 발원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 프랑스의 동시대 미술 지원 정책은 문화 관광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영국과 독일 역시 자국 미술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국가적 정체성을 논하자면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 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세기 넘게 국가적 경쟁을 올림픽처럼 강조해온 데다 심지어 사상 시스템까지 있음에도 국제 미술계에서 의미 있는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의 대표적 예술가인 한스 하케는 오래 전부터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미술품 컬렉션이 공공연하게 자국 작가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음악 시장 체계모니가 보편화된 클래식 음악 세계에서 굳이 상업적 지향이나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점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동시대 미술에서도 서유럽과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술 한류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이런 논선을 추구해가는 지나친 상업화와 대중화로 예술 작품의 내용적 수준이 하락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일 변화는 경계해야 한다. 또 작품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맞지 않는 예술가도 분명 있다. 예술은 특정한 한두 가지 방

식으로만 이뤄지지 않으니까. 사실 유럽, 미국, 중국처럼 거대 내수 시장을 갖춘 지역의 예술가들은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뛰어난 예술가라면 커다란 시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미국, 중국처럼 거대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군을 지녔음에도 극도로 협소한 재정적 전망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스타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와 쉬전의 공통점

지난여름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전시는 영국 미술계의 기린아이자 슈퍼스타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의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들(Treasures from the Wreck of the Unbelievable)〉 전시였다. 고대에 예술품을 신고 가다가 바다에 가라앉은 배에서 찬란한 유물을 건져 올린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개최된 이 전시는 패션 브랜드 구찌와 경매업체 크리스티 등을 소유한 프랑수아 피노 회장이 꾸리는 전시장 Punta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와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를 통째로 채운 1백89점의 작품으로 이뤄졌다. 한화로 7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비평가의 엄청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지만, 흥행으로는 대성공이었다.

이 전시는 미술계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 거대 자본과 시장, 예술품 제작 기술의 발전과 가치 부여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예술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미술관이 새로 생겼으며, 미술 시장의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커졌다. 커진 미술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작품 제작 방식을 소량 생산, 직접 제작에서 대규모 다량 제작, 공격적 아웃소싱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각을 전공한 적 없는 허스트는 상당수의 작품을 CAD와 3D 프린팅 기법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공과 무관하게 다른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모습 역시 보편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예술가는 이제 예술감독, 혹은 자신의 작품을 관장하는 큐레이터, 프로듀서가 되어가고 있다.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을 화랑 외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경매나 온라인 스토어 'othercriteria.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허스트의 2008년 경매 '영원히 나의 뇌리 속에서 아름답게(Beautiful Inside My Head Forever)'는 매출 2억달러(약 2천2백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 내세우는 세계적 작가인 쉰젠(Xu Zhen)의 경우에는 아예 중국의 석조 공장을 사들여 그곳에서 생산하던 장식용 대형 조각을 자신의 작업에 사용한다. 그는 베이징인 컴퍼니(MadeIn Company)라는 회사를 차려 자신의 작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한다. 영국이 낳은 또 다른 스타 작가 줄리언 오페(Julian Opie)는 소위 초짜 시절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성장한, '머더 갤러리'라고 불리는 주 갤러리를 통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화랑을 선정해 작품을 판매한다. 한 나라에서 판매하는 작품은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작품과 서로 겹치지 않는다. 마치 의류 브랜드인 자라나 H&M처럼 판로 관리를 하는 셈이다.

## 미술 시장의 상업성과 예술성은 별개인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경우 작품 생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예술가가 작품 소장이나 컬렉션을 위해 만들어야 할 작품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한다. 많은 작가들이 비엔날레와 같은 비평적 무대를 위한 작품과 시장에서 판매할 작품을 동시에 제작한다. 두 트랙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예술가를 상업적이라 비난하는 이들

9월호 84쪽

은 거의 없다. 비평가의 비난 대상은 세계화(globalization)다. 그러나 이미 세계화는 동시대 미술의 핵심적 특징이 되어버렸다.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예술품의 질과 수준이다. 그리고 예술 작품의 질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투자와 기술적 자원, 그리고 비평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엘리트 작가들이 '전문가 혹은 전문 업체(third party)'가 참여하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자신의 작품 개발을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려면 작품 개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지속적인 작품 판매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내 시장의 수요만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반드시 해외 시장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시대 미술의 논리 역시 대중음악이나 영화 시장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기존 화랑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몇몇 화랑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화랑은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어다'가 이윤을 붙여 국내 시장에 재판매하는 식의 경영을 했다. 한류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경영에는 곧 한계가 닥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랑 역시 대중문화 산업처럼 '에이전트'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대중음악 에이전트에는 A & R(Artist & Repertory)이라는 부서가 있다. 여기서는 예술성과 시장성을 면밀하게 따져 곡을 고르고 개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한국 대중음악의 힘은 A & R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랑 역시 함께 일할 작가를 선발하고 그들과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국제 시장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R & D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단색화 붐은 민간 화랑이 주도해 장기적 마케팅 전략과 투자를 통해 핵심적인 국가적 문화

재를 창출한 사례다. 단색화는 세계 무대에서 거둔 상업적 성공만이 아니라 한국 미술의 1960~80년대를 주목해야 할 시대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백남준만큼이나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 대대적인 리셋이 시급한 한국의 미술 생태계

한국의 동시대 미술 현장은 '리셋'이 필요하다. 시장, 관객, 미술관, 교육, 제도 등 모든 부문에서 비효율과 패배주의가 두드러진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주창한 '기대 감소의 시대'나 요즘 빈번히 회자되는 '헬조선' 같은 패러다임이 비평가와 예술가 사이에서 비평적 배경으로 굳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외부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당장 아시아의 미술 환경만 놓고 봐도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화랑은 컬렉터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불안한 기색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2백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완판을 기록한 화랑은 대부분 해외 화랑이다. 시장 콘텐츠 경쟁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작가를 양성해내는 미술대학의 경쟁력은 언젠가부터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교육은 젊은 예술가들의 역량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리 짜인 커리큘럼이나 교수의 관점을 이식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술 현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존재감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그렇다고 다른 미술관들이 그다지 의미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다, 그럴 만한 소양을 갖추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예술 분야 가운데 창작 인구가 가장 많은 분야가 미술인데도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1차적 책임은 스

트로 영향력을 키우지 못한 미술인들에게 있다.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상업화에 반감을 품을 것이라는 생각은 선부른 기우일지도 모른다. 상당수의 젊은 작가들은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젊은 예술가를 주축으로 미술 장터가 생기면서 기존 미술 시장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일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나친 엄숙주의와 예술적 근본주의에서 벗어나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술가들과 시장의 요구를 들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평을 보노라면 돕기는커녕 마치 중세의 교부철학처럼 이들의 정신세계를 억압하려는 듯 보인다. 시장이 너희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욕박지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물론 예술가들 역시 막무가내로 시장 조성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시장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예술과 정책만큼이나 예술과 시장 역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다. 미술 한류는 아마도 여러 문화 예술 분야 중 맨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사방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한류가 일어난다면 그건 전적으로 예술가들의 재능에 기인하는 것일 터다.

한류는 이제 우리의 동시대 문화가 서구를 추종하는 모방적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기준으로 하는 주체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동시대 미술 역시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 한 명 한 명 모두 세계의 중심이 되어 백남준의 말처럼 '글로벌 그루브'에 참여하는 시점이 어찌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 '리셋'의 의미와 지체를 바 꾸려야 하는 행보에 나선다면 말이다. 글 유진성(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전시 기획자, 미술 평론가)

# Rick Owens in Venice

지구촌을 누비는 직업에 종사하는 기자로서도 한 명의 인터뷰이를 세 차례, 그것도 세 곳의 글로벌 도시에서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파리, 서울, 그리고 최근엔 베니스에서 오늘날 하이엔드 패션 산업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 리크 오웬스(Rick Owens)와 맺은 인연이다. 해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 리도 섬에 그만의 감성을 담은 스타일로 손수 꾸민 여름 별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Even for a well-traveled journalist, it is no usual thing to meet the same person as an interviewee three times, and that in three different cities on the planet. First it was Paris, and then Seoul, and recently, Venice. Here's a conversation with Rick Owens, one of the most famous names in today's high-end fashion industry, at his 'Owens-esque' apartment on Venice's Lido island, an annual host of the Venice Film Festival.



1 베니스 리도 섬에 있는 리크 오웬스(Rick Owens)의 아파트식 별장에 놓인 이탈리아 미래주의 두상 작품. 레노 베르톨리(Renato Bertoli)의 'Profilo Continuo'(1933). 2 리크 오웬스는 주 무대로 활동하는 파리, 공장이 있는 이탈리아 콘코르디아(Concordia)에 이어 베니스 리도 섬에 여름 별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전에도 상대적으로 한적하면서도 베니스 바엔 남녘에 같은 아트 행사와 전시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리도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창가에 있는 긴 조각상은 이탈리아 미래주의 작가 타이야히(Thayaht)의 'Altoparlante Italic'(1935). 3 리크 오웬스는 오는 12월 밀라노에서 영예로운 생애 첫 회고전(retrospective)을 가진다. Photo by Danielle Levitt 4 채광 좋은 욕실에도 이탈리아 미래주의 작품이 있다. Thayaht, 'Dux'(1929). 5 푸른 하늘, 아드리아 해의 해변을 만끽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아드리아 해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단 베니스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섬이다. 베니스의 수많은 매력 중 하나는 인근에 다소 대조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명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드리아 해와 베니스 석호 사이에 있는 작고 길고 가느다란 모양섬의 섬 리도(Lido)가 좋은 예다. 미로처럼 복잡하고 좁으며, 사람들로 들끓는 베니스 본섬과 달리 리도 섬에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충분한 데다 상대적으로 한결 조용하고 널찍한, 여유롭게 다닐 곳이 많다.

Venice, arguably the most uniquely beautiful place in the world, also known as "The Queen of the Adriatic," has a myriad of charms, including the somewhat contrasting beauties of its vicinity. The Lido (Lido di Venezia), a small, skinny island between the Adriatic and the Venetian lagoon, is one good example. Unlike the labyrinth-like narrow crowded streets on the mainland of Venice, there are roads that are wide enough to drive through and obviously more quiet, spacious attractions to visit.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부신 백사장이다. 과연 리크 오웬스가 여름 별장을 마련할 곳으로 낙점할 만하다. 2003년 파리로 이주한 이래 유럽에서 거주하고 활동해왔지만, 원래 그는 풍부한 햇살과 바다를 거느린 캘리포니아 출신 아나기. 리도 섬에 도착해 직접 꾸민다는 아파트 근처로 마중 나온 그의 모습을 보노라니 멀리서도 바다 애호가다운 면모가 여실히 느껴졌다. 미풍에 살짝 나부끼는 긴 검은색 머리, 탄탄한 장신의 몸매의 소유자인 그는 완전히 맨발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항상 그렇듯 검은색 옷을 입고서.

And, most of all, there are sandy beaches! No wonder Rick Owens chose the Lido for his summer house. Yes, after all, he is from California although he has lived and worked in Europe since he moved to Paris in 2003. And he did look like a beach lover from a distance when I was approaching toward his newly adorned apartment on the Lido: a tall and well-toned man standing and waiting on a street, totally barefoot with his long black hair flowing in the summer breeze. Of course, he had on his usual black outfit.

락이 여름을 지내는 보금자리인 갈보기엔 평범한 5층 건물의 맨 꼭대기에 자리한다(바로 아래층에 있는 공간도 일을 위해 쓰고 있다). "1957년에 지은 아파트예요. 올해로 여기서 두 번째 여름을 지내네요. 작년에 공사를 다 끝냈죠." 리크 오웬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여름을 리도 섬과 함께한 지는 꽤 오래됐다. 아파트를 마련하기 전에도 5~6년 동안 여름이면 늘 리도 섬을 찾았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묵은 정소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파트에서 도보



사진: Jon Jay



1

10분 거리에 있는 엑셀시오르 호텔이다. “언제나 엑셀시오르를 좋아했어요. 무어 건축양식이 정말로 특이하고 연극적이거든요. 리도 카지노 건물도 좋아해요. 1930년대에 지은 합리주의 건축물이지요. 베니스, 그것도 비닷가를 낀 위치에 이런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행운이에요.”

Rick’s summer ‘nest’ is situated on the top floor of a modest-looking five-storey building (he also uses the downstairs space for work). “This apartment was built in 1957. It’s my second summer here. We did all the construction last fall,” he says. But even before moving in he spent his summers on the Lido, for five or six years. And he always stayed at Hotel Excelsior, which is only a ten-minute walk away from his apartment. “I always loved staying at the Excelsior. Its Moorish architecture is so bizarre and theatrical. I also liked the Lido Casino, the rationalist building built in the 1930s. So I was really lucky to be able to get all of this space in Venice, especially right on the seaside.”

그의 말은 옳았다. 그가 옥상 테라스로 안내하자 푸른빛의 아드리아 해와 해변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졌다. 이곳에서 보내는 그의 일상은 아주 단순하게 돌아간다. 아침마다 해변에 가고 엑셀시오르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낮잠을 즐긴 뒤 저녁에는 그날 처리해야 할 일을 한다고. 그리고 해변에서도 집에서든 책을 많이 읽는다.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다. 그 이말로 완벽한 휴식 “저는 조용해서 이곳을 좋아해요. 주변에 관광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본섬)와 베니스 비엔날레 개최 장소까지 5~10분이면 갈 수 있죠. 때때로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게 도움이 돼요.”



2



3

His Space

He is right. As he took me to the rooftop terrace, the stunning blue Adriatic Sea and a beautiful beach unfolded before my eyes. He says his daily routine is pretty simple: go to the beach every day in the morning, have lunch at his favorite Excelsior, take a nap, and get the stuff he needs to work on done in the evening. And he reads a lot both by the sea and at home while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sea.” Perfect for relaxation! “What I like about here is that it’s quiet. There’s really no tourists around here. But the city and the Venice Biennale are just five-to-ten minutes away. Sometimes, it is good to be connected to that kind of energy.”

그가 집을 청하고 독서를 하고 운동을 즐기는 5층의 인테리어 스타일 역시 단 순미를 품고 있다. 미니멀리즘 가득한 침대, 책으로 꽂힌 긴 테이블, 운동기 구 정도를 제외하면 장식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파 라에 있는 집은 짐시 같은, 와이프(미셸 레미) 스타일이 많이 반영돼 있다면, 이곳은 보다 차갑고 비어 있죠. 전적으로 제 스타일이예요.” 그래도 릭 오웬스 특유의 감각이 녹아 있는 가구와 예술 작품이 눈에 띈다.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조카(두상) 작품, 좁은 상판 등받이가 인상적인 검은색 가죽 의자 세트, 그리고 모노크롬 계열의 캔버스 작품도 있다. “20세기 초반 이탈리아 미래주의의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들의 작품이 이 공간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요. 의자들은 핀란드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에로 사리넨의 아버지이기도 한 알리엘 사리넨의 작품이죠.”

The interior style of his space on the fifth floor where he sleeps, reads and works out is also quite simple. Except for a minimalistic bed, a long table filled with books, and some fitness equipment, there is nothing much decorative. “Our house in Paris is more of my wife’s style, more gypsy, whereas it’s more empty and cold here. It’s totally me,” he explains. Still, there sure is a selection of ‘Owens-esque’ furniture and artwork. Several Italian futurist heads, a set of black-leather chairs with a distinctive style of a narrow upper back, and a monochrome painting. “I like Italian futurist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I thought they would be appropriate in this space. The chairs are pieces designed by Eliel Saarinen, a legendary Finnish designer and father of Eero Saarinen, my favorite architect.”

이렇게 4개월 동안 이곳에서 단순한 일상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지만 그에게 ‘여름날의 권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사실, 한편으로 그는 바쁘 기도 하다. 곧 선보일 새 컬렉션도 그렇지만, 오는 12월 5일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그의 첫 회고전 준비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회고전이 열리는 장소인 라 트리아날레(La Triennale) 역시 1930년대(그가 좋아하는 시기에 지은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그래요, 울기들은 정말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현재의 고요한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죠.” 그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글 고성민

Even though he spends about four months in Venice, it seems there’s no such thing as “the ennui of summer.” In fact, he was quite busy preparing for his very first retrospective in Milan on December 15 as well as his new seasonal collection. Interestingly, La Triennale di Milano, the venue for his exhibition, is an iconic architectural work from the 1930s as well. “Well, this fall will be really busy. So I am really enjoying quiet time now,” he smiles. by Seong Yeon Ko

1 릭 오웬스가 수집하는 이탈리아 미래주의 두상 작품 Dux의 스케치. 2, 5 운동 마.아담 게 옥상 테라스와 실내에도 운동기구를 들여놓았다. 3 릭 오웬스는 베니스 리도 상에 있는 별장에 머물 때도 언제나처럼 다독 한다. 4 Steven Parrino, 'Untitled', Canvas, 릭 오웬스는 지난해 미국 LA 현대미술관(MOCA)에서 자신의 아트 퍼포먼스 전시를 가졌을 때 미국 아티스트이자 뮤지션 스티븐 파리노와 협업한 적이 있다. 6 햇빛이 거문 줄게 강가는 릭 오웬스의 아파트 건물 옥상 테라스(rooftop terrace). 이곳과 아파트 바다에 사용한 재료는 지중해 사르데냐(Sardinia) 섬의 브레시아 사르다(Breccia Sarda) 대리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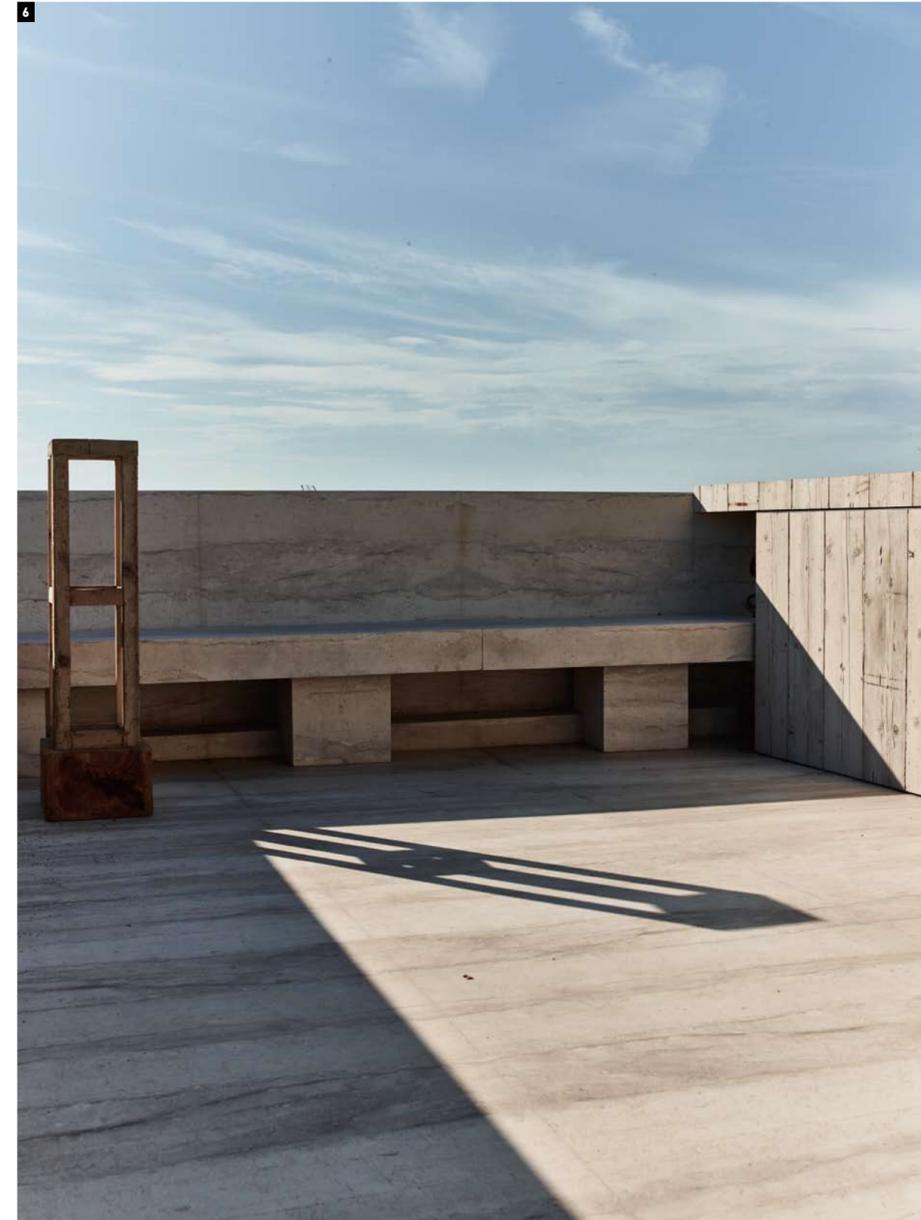
ARE Jon Jay



4



5



2017 Art+Culture STYLE CHOSUN

## 건축계 노벨상 수상자 3인의 철학

# Pritzker Winners' Way

1979년에 제정된 프리즈커(Pritzker)상은 아직 연력이 40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상이지만 그 영향력과 권위는 견줄 데 없이 막강하다. 그래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프리즈커상은 최근 더 젊어지고, 수상자의 면면이 다채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그중 3인의 건축 철학을 요즘 미디어상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유현준 건축가가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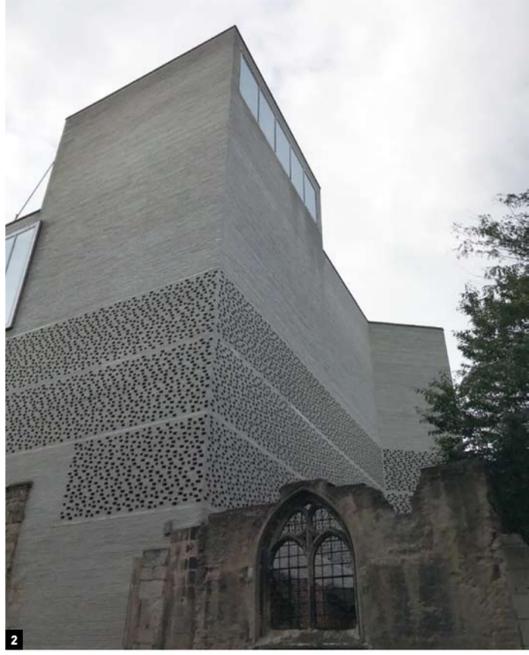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즈커(Pritzker)상은 하나의 작품보다는 금세기 세계 건축에 크게 공헌한 건축가, 또는 그들에 주어지는 일종의 공로상이다. 그래서 젊은 건축가보다는 나이 든 이들이 받기 마련이었다. 상이 책정된 이래 수상년 동안 40대 수상자는 미국의 리처드 미어(Richard Meier)가 유일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40대 건축가 수상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일본, 중국, 칠레 등 유럽과 미국 이외의 국가 출신 건축가 수상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최근 추세이다. 유럽과 미국은 오래전에도 사회가 끝났고, 아시아에 비해서는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도 적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다. 현대 건축의 중요한 이슈에 나름의 답을 제시한 최근 프리즈커상 수상자 3명의 건축 세계를 소개한다.

### 물성의 건축 : 페터 Zumthor

2009년 수상자인 스위스 건축가 페터 Zumthor. 그의 사무실은 경치 좋은 스위스 산골에 있고, 직원들이 세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Zumthor의 대표작 중 하나는 스위스 산골 작은 마을 경사진 산기슭에 위치한 예배당인 '성 베네딕트 채플'이다. 이 교회는 경사진 대지 위에 나무로 마루를 만들어 평평한 타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포함하고 있다. 규모는 아주 작지만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인공물인 건축도 세 가지 방식으로 자연을 대한다. 이를 경사 대지 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명해보자. 첫째,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흔히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재개발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지의 경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거대한 축대를 쌓아 평평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얹는다. 대형 토목공사가 필요하고 자연의 모습을 모두 바꾸어버리는 폭력적인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연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좀 더 스마트하다. 경사 대지가 있다면 그 경사면을 이용한다. 경사 대지에 교회를 짓는다면 대지의 경사면을 이용해 교인의 객석을 배치하고 강대상(講臺)을 아래쪽에 뒤 편하게 설교를 들



을 수 있는 기능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탄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보는 방식이다. 성 베네딕트 채플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교회는 경사 대지에 마루를 평평하게 만들고, 벽체와 마루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땅과 교회 마루 사이 빈 공간을 통해 음향의 공명을 만들어내고, 인공 건축물과 자연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에 대해 Zumthor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디자인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이 예배당은 자연을 대화 상대로 보는 건축이다. 우리나라의 정자도 이처럼 자연과 대화를 가능케 하는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자는 물 가운데 위치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연과 건축 사이의 물로 확보한 빈 공간이 인간에게 사유할 여유를 주는 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을 극복할 대상이나 이용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대



### 약자를 위한 살아 있는 건축 :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축가는 2016년에 프리즈커상을 거머쥔 칠레 산티아고 출신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다. 프리즈커 역사상 칠레 건축가로서는 최초, 남미 건축가로서는 네 번째 수상자인 그는 사실 이 글에 소개한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눈에 띄는 작품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칠레의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사회 참여형 건축'의 모범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로운 프리즈커 수상자가 됐다. 일례로 2004년 칠레 북부 아리카라는 도시에 들어선 아라베나의 '킨타 몬로이(Quinta Monroy)'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1만달러의 예산으로 빈민층을 위해 지은 이 집합주택을 보면 명목주택의 절반만 지은 듯한 모양새다. 그래서 반쪽 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택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의 절반만 짓고 나머지 절반은 차차 돈을 벌면 집 주인이 완성해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추구한 주요 건축 개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에 완성되는 타운 하우스와 달리 각각의 집들이 다른 개성을 지닌 집합 주거 단지가 오랜 세월을 걸쳐 완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집은 처음에 시를 오면 실내 마감까지 하도록 없이 달랑 구조만 완성된 모습을 갖춰뜨리게 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벽지로 도배도 하면서 스스로 마무리해간다. 시간이 흘러 자취가 태어나고 성장이 여분의 방이 필요하면 비로 옆에 증축을 하면 된다.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부분은 집의 데크(deck) 공간으로 마감처럼 사용하면 된다. 대다수 건축가가 흔히 하는 실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완성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의견을 만들고 인터미어의 재료와 색상, 그리고 가구 배치까지 모든 요소를 상세하게 아우려고 하는 태도는 물론 좋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정작 건축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개성을 앗아 가버리는 숨 막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성숙한 건축가라면 70% 정도만 완성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색깔로 공간을 채워야 할 두기 마련이다. 아라베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건물의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게 했다. 여기서 건축은 완성물이 아니라 건축가와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듭하는 셈이다. 건축물 안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호흡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더불어 찬찬히 성장시켜나가는 그의 작품은 살아 있는 유기체라 여길 만하다. 글 유현준(홍익대학교 건축대학부교수, (주)유현준건축사무소 소장)

화 상대로 보는 동등한 관계 설정에서 시작해야 나올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디자인 방식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Bruder Klaus Field Chapel)'에서는 재료의 물성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대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건축가는 통나무 여러 개를 묶어 세워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은 뒤,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불로 태웠다. 통나무 가루집이 타는 과정에서 생긴 타르 성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밀착되면서 검은색 콘크리트를 만들어냈다. 그 라하여 색성뿐만 아니라 나무 냄새도 함께 남아 있는 독특한 콘크리트 벽의 교회 공간을 창조해냈다. 제작 과정의 시간과 시간이 건축 재료에 남아 있는 새로운 노출 콘크리트를 빛낸 것이다. 훌륭한 건축가들은 각기 자신만의 특성을 노출 콘크리트에 담는다. 예컨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거친 콘크리트, 안도 다다오(Tadao Ando)는 매끄러운 표면의 노출 콘크리트로 유명하다. Zumthor의 클라우스 필드 채플의 검은 콘크리트는 건축사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물성이다. 건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눈에 보이는 건축 구조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일이다. 이때 프레임이 되는 건축물의 재료는 공간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Zumthor는 현란하지 않은 형태의 건축물을 디자인하지만, 매년 기존 건축 재료를 알뜰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능력을 지녔다.

### 탈중심의 건축 : SANAA

두 번째로 소개할 건축가 그룹은 2010년에 수상한 세자마 가즈요(Kazuyo Sejima), 니시자와 류에(Ryue Nishizawa) 2인조로 이뤄진 건축 사무소 SANAA. 건축을 시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들이라는 찬사를 듣고 하는 이들의 작품은 현대 사회의 탈중심적 현상을 건축 공간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TV 프로그램을 보면 MC라는 한 명의 리더가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런데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한 명의 MC가 아닌 공동 MC 여러 명이 사회자 역할을 한다. 이렇듯 하나의 중심과 주변부가 있는 구성이 아니라 여러 명의 중심점이 군집된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터넷 연결망도 그러한 탈중심적 특징의 예다. 인터넷은 병렬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데, 이는 감자 같은 줄뿌리 식물의 구성과도 같다. 이를 '리좀(rhizom)'이라고도 한다. 중심과 끝이 지워진 모양새를 띤 '수목형(樹木形) 구조와 대비되는 구성이다. SANAA에 유명세를 안겨준 작품은 일본 가나자와에 있는 '가나자와 미술

관'이다. 이 미술관은 동그란 평면 안에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이 특별한 규칙 없이 흩어져 있는 구성을 띤다. 그래서 박스와 박스 사이 공간이 무작위로 생겨난다. 기존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위계와 규칙이 보이는 공간 구성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비슷한 양식의 배경이 주택 작품인 '모리야마 하우스'의 평면과 독일 예센에 있는 '줄버라인 학교'의 창문 모양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볼 수 있다. SANAA의 건축은 이처럼 탈중심의 구성을 공간적으로 보여준다. 근처에 속하는 '테시마 미술관(Teshima Art Museum)'을 보면 이들이 건축적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 놀이터에 있는 모래밭에서 즐겨 했을 법한 '두꺼비집 짓기'를 예로 들어보자. 손을 모래밭에 집어넣고 위에 모래를 덮은 뒤 단단히 다지고 나서 조심스럽게 손을 빼낸다. 인공 공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낸다. 욕심을 부려 과하게 파내다가 결국 무너져 넘어가 끝난다. 더 크고 넓은 두꺼비집을 만들기 위해 비 온 뒤에 젖은 모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어릴 때 한 번쯤은 건축이었던 셈이다. 니시자와 류에는 미술가 나이토 레이(Rei Naito)와 함께 이 두꺼비집을 짓는 원리를 이용해 테시마 미술관을 설계했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흙을 사람 키보다 높이 쌓아 안전한 언덕을 만들고 형태를 공개 다듬은 후 그 위에 비닐을 깬다. 그런 다음 비닐 위에 구멍 2개를 만들고 이를 파헤쳐 철근을 배설한다. 이때 철근이 비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지게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철근을 덮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는 구멍에서 흙을 파낸다. 마치 모래밭에 두꺼비집을 짓듯이 흙을 다 파내고 나면 일반적인 목재 거푸집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곡면의 얇은 조개껍질 같은 콘크리트 지붕이 나온다. 쌓았던 흙은 두꺼비집 지을 때 놓이던 모래 속에 묻었던 손이고, 지붕에 부은 콘크리트는 두꺼비집의 젖은 모래인 것이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조개껍질 같다고 해서 '셸(shell) 구조'라고 부른다. 내부는 마치 로마의 판테온처럼 조개껍질 같은 둥근 구조체 안에 구멍을 뚫는 구조와 햇빛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온다. 카다만 구멍으로 새가 날아 들어와 신나게 놀다가 다시 다른 구멍으로 나가기도 한다. 나이토 레이의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오게 했다. 매끄러운 방수 표면의 바닥 위에서 이 물들은 표면장력으로 서로 뭉쳐 있기도 하고 또 르 흘러내리기도 하고 바람에 흩날리기도 한다. 아이들이 노는 원리를 이용한 건축가의 창의적인 기법과 미술가의 사적인 장치가 합쳐지면서 자연이 완성하는 '미술관이 태어난' 것이다.



1 페터 Zumthor가 설계한 런던 세퍼틴 갤러리(Serpentine Gallery)의 파빌리온(2011). 인간이 카페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2 페터 Zumthor의 또 다른 작품인 독일 쾰른 콜롬바(Columba) 미술관. 제2차 세계대전 중 폐허가 되다시피 한 교회를 현대적으로 증축한 미술관이다. Photo by SY KO 3 니시자와 류에와 나이토 레이의 협업이 돋보이는 결과물인 테시마 미술관(Teshima Art Museum). Photo by Noboru Monkawa 4 산티아고 칠레 가톨릭 대학(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에 새로 14층짜리 직육면체 콘크리트 건물 'UC 오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 Credit Nina Vidic © ELEMENTAL 5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2016년 베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아 전장에서 알파다라는 주제로 대형 기획전이 열린 아르센알레(Arsenal)를 수상했다. 사진은 전장도 입방체에 위치한, 아라베나가 담당했던 방. 2015년 비엔날레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90톤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 ELEMENTAL 6 아라우코 포레스트 캠퍼스(Arauco Forest Company)라는 회사 직원과 도급업자를 위한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Villa Verde'. © ELEMENTAL 7 SANAA가 설계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UNTO



interview with  
Robert Carsen

# Master of Scenes

1

하나의 전시가 대중 앞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려면 작품, 오브제, 공간 같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어떤 레시피가 완성될지는 큐레이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디자인하는 시노그래퍼(scenographer)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무대 연출과 전시 디자인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캐나다 출신의 크리에이터 로버트 카슨(Robert Carsen)이 직접 들려주는 시노그래퍼의 세계.

An exhibition is a space in which works of art or objects meet an audience. A scenographer's principal role is to ensure that these components are flawlessly assembled in an exhibition, shedding light on the lineup of artistic creations while embracing innovation and a creative spark. Let us invite you to indulge in the world of scenography with Robert Carsen, a Canadian artistic director, who frequently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stage direction and exhibition design.



2

## 공연 예술 무대, 전시장으로 들어오다

공연 예술 속 장면을 일컫는 용어 'scene'과 'graphic'을 합성한 단어인 '시노그래피(scenography)'. 장르 간 융합이 보다 빈번히 이뤄지면서 주목받고는 있지만 다소 생소할 만한 개념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의 조우는 꾸준히 시도되어왔다. 최근 사례를 꼽자면, 올해 초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웨인 맥그리거 스튜디오가 함께한 현대발레 공연 《트리 오브 코즈(Tree of Codes)》의 비주얼 콘셉트를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무르 엘리아슨이 담당했으며, 20세기 미술의 가장 마르크 사칼이 의상과 무대 디자인에 참여한 오페라 무대를 고스란히 재현한 듯한 전시가 내년 1월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를 서울에 상륙한 《여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 루이 비통》(이하 VVV) 전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장을 80일간의 세계 일주 무대로 탈바꿈한 로버트 카슨은 시노그래피의 세계에 공감을 품게 만든다. 사실 그는 시노그래퍼 이전에 오페라 감독으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파리, 런던, 뉴욕은 물론 밀라노의 라 스칼라,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등에서 상연된 1백여 편의 공연을 이끌면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해온, 오페라계의 '혁신가'로 통한다.

## Opera stage meets exhibitions

Scenography is a compound formed by blending the two words, "scene" and "graphic." Although this notion may seem unfamiliar to some extent, the encounter between the performing and visual arts have long been present throughout history. More recently, Olafur Eliasson, a world-renowned artist, created visual scenes for 《Tree of Codes》, a performance by dancers of the Paris Opera Ballet, choreographed by Wayne McGregor's studio.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the LACMA features an exhibition embellished with Chagall's vibrant costumes and monumental sets for

Art Talk



3

ballet and opera, delivering 'Fantasies for the Stage' until January 2018. For the 《Volez, Voguez, Voyagez - Louis Vuitton(WV)》exhibition that arrived in Seoul last summer, Robert Carsen transformed the exhibition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DDP), into a stage set for 'Around the World in 80 Days.' It is no surprise that an internationally-acclaimed director of opera who led over 100 performances at the world's most prominent theaters was behind the scenes, imbuing his works with delicacy and elegance.

## 오페라에서 패션, 순수 미술에 이르는 다방면의 활약

카슨이 전시 시노그래퍼의 길을 걷게 된 건 10년 전쯤. "2008년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마리 앙투아네트》전의 디자인을 해보지 않겠는 의뢰를 받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사실 그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라 여겨 이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카슨이야말로 적임자라며 설득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전시 시노그래퍼와 오페라 무대 연출 감독이라는 '투트랙'으로 돌아섰다. 2012년 그랑 팔레에서 열린 《보헴(Bohèmes)》전을 맡은 데 이어 2013년에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개최된 《인상주의와 패션(L'Impressionisme et la Mode)》전의 디자인을 지원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당시 오르세 전시장을 방문했는데, 이를 계기로 카슨은 VVV전의 시노그래퍼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 Bridges Scenes and Audiences, from Operas to Exhibitions

Carsen started his career as a scenographer about a decade ago. "In 2008, I was asked to design the exhibition 《Marie Antoinette》 at the Grand Palais, and it was the

beginning of all this," said Carsen. At first, he turned down the offer, considering that the task was beyond the scope of his expertise. It was the former French Minister of Culture who persuaded him to take the position, making him embark on a new journey of pursuing a 'two-track' career. He garner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the audience for his scenography for the 《L'Impressionisme et la Mode》exhibition at the Musée d'Orsay in 2013, following the 《Bohèmes》exhibition at the Grand Palais in 2012. LVMH Chairman Bernard Arnault, who was deeply inspired after visiting the exhibition at the Musée d'Orsay, commissioned him to oversee the scenography for the WV exhibition.

## 다른 듯 닮은꼴의 미학

움직이지 않는 관객의 시선이 무대에 고정되는 공연 연출에 익숙한 그에게 전시 연출은 색다르게 다가왔다. "관람객이 아닌 길래의 길로 어느 순서로 공간을 둘러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아름답게 보여야 하죠. 그 방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극장에서 관객과 무대의 소통을 돕는 방식과 전시에서 관람객과 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각각 다른 형태의 이야기이지만 일종의 대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관람객이 오브제를 접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싶거든요." 카슨의 손길에 닿은 전시는 극적인 장면 전환을 거듭하고 리드미컬하게 펼쳐지면서 변화를 이어나가는 게 특징이다. 서곡의 잔잔한 시작에 이어 이야기와 듀엣, 간주곡의 선율이 공연장 안을 차곡차곡 매우듯 그가 디자인한 전시에서는 매 장면이 대중의 기억 속에 켜켜이 쌓인다. DDP에서 열린 VVV전에서도 그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뮤직 룸은 합창을 연상시키는 구성으로 파블로를 장식한다.

## Sharing Different but Similar Aspirations

He was intrigued and fascinated by the fact that an exhibition allows visitors to approach artworks in multiple ways, unlike a stage performance, in which the audience is fixed opposite the stage. "Because we do not know what path they would take and how they will experience the exhibition, we must ensure that the objects look beautiful from all sides. Finding the best answer to this was definitely the hardest part of my job," he said.



5

에디터 고재현(Editor SYKO) 사진 제공 루이 비통



6



7

Nevertheless, how he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at a stage performance resembles the way he makes visitors feel connected to an exhibition space. "Each objec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yet one common aspect is that all the objects are telling stories. I wanted to make sure the visitors could see the objects in a new light," he added. A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exhibitions designed by Carsen is the rhythmical variations that occur with dramatic scene changes. Similarly, each scene from the WV exhibition made an impression on visitors, just like the arias or duets taking the opera stage, ready to charm the spectators one after another. The Music Room, a gorgeous modern composition created by Carsen, marks the grand finale of the WV exhibition.

## 전시로 만나는 한 편의 여정

VVV전은 한국에서의 첫 프로젝트이자만 김하가 남달랐다. "전시를 한 편의 여정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카슨은 무엇보다도 큐레이터의 메시지, 즉

'여행의 발명'이라는 테마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모래사막을 배차하는가 하면 실제 높이를 빙글케 하는 돛을 설치했는데, 일렁이는 파도 너머 항해하는 느낌을 주고자 각도를 튼 것은 그다운 섬세함을 반영한 디테일이다. "개인적으로 다음 장면이 예측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시에서도 다음 공간이 미리 보이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전시장을 차례로 지나면서 금세 어느 방향인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큰 규모는 오히려 그에게 창조적 자유를 줬다. 뉴욕의 옛 미국증권거래소 건물과 또 다른 공간에서 지난 10월, VVV 순회전 오픈을 마무리한 그는 본연의 영역인 공연 연출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2월 공개되는,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열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의 연출을 맡았기 때문.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그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다. 과거와 현재가 일맥상통하고, 예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바람이 그것이다. "우리가 극장이나 전시장에 가는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배워는 거죠." 글 황다나

## Retracing a Great Journey through an Exhibition

The WV exhibition has been a profound experience for Carsen. "I intended to turn this exhibition into a great journey," Carsen said. He focused on delivering the curator's message, while meticulously executing the theme of 'Invention of Travel,' by including a sand dune and a life-size sail alongside other surprises. The deck was designed to be slightly angled to give an impression that it was actually sailing, reflecting his attention to detail. "I personally do not like it when it is easy to predict what will happen next. Even in an exhibition space, it is hard for me to get focused when the next section comes into view," he added. He claimed to have enjoyed an artistic freedom spurred by the immense scale of the DDP, which led visitors to easily lose their sense of direction while exploring the exhibition halls one by one.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WV exhibition at the former American Stock Exchange building in New York last October, he will return to his field of stage direction with the forthcoming production of Shakespeare's 《The Tempest》, set to premiere in December at the Comédie-Française. However, whatever project he leads, his goal remains fundamentally the same: to let people know about the importance of art, allowing them to travel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 believe that we attend a theater show or an art exhibition to reflect on ourselves, to learn about people." by D. H. (art writer)

1 성행리에 마무리한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1월 7일까지 뉴욕 옛 미국증권거래소 건물에서 선보이는 VVV 전시. 2 로버트 카슨(Robert Carsen). ©Felipe Sanguinetti 3 로버트 카슨이 아티스틱 디렉터로 참여한 《달다(Daïda)》 전시. 4 카슨이 시노그래퍼 겸 아티스틱 디렉터로 처음으로 참여한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전시. 5, 7 《보헴(Bohèmes)》 전시 풍경. 6 오르세 미술관에서 개최된 《인상주의와 패션(L'Impressionisme et la Mode)》 전시 풍경. 시노그래피 디자인에서 연극적인 요소가 돋보인다.



# in Search of Henri Matisse's Traces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 단순한 선만으로 누구보다도 더 눈부신 '빛'을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듣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원색의 미술사'로 불리는 그는 스무 살이 넘어 미술에 입문했지만 50여 년 세월이 걸쳐 하루에 평균 12시간씩 작업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시대를 넘나드는 영혼의 울림을 남긴 이 위대한 예술가의 자취를 그가 태어난 르 카토-캄브레시(Le Cateau-Cambrésis)와 생의 후반기를 수놓은 코트다쥐르(Côte d'Azur)에서 찾아냈다.



파리에서 기차(TGV)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북서부 중심지 릴(Lille). 사실 벨기에와 더 가까운 플랑드르(Flandres)의 역사적인 중심지이던 이 도시에서 다시 1시간 남짓 차로 이동하면 르 카토-캄브레시(Le Cateau-Cambrésis)라는 작고 한적한 마을에 닿을 수 있다. 20세기 가장 낡은 '색채의 미술사'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가 태어난 곳이자 마티스 미술관(Matisse Museum in Le Cateau-Cambrésis)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많은 이들이 마티스 하면 그가 인생 후반기의 대부분을 보낸 남프랑스를 떠올리지만, 이 미술관은 마티스 본인이 기증할 작품을 직접 골라 어떻게 공간에 배치할지까지 관여하면서 꽤나 공들인,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다.

## ‘갯빛 하늘’에서도 지리산 풍부한 감성

1869년 12월 마지막 날, 르 카토-캄브레시에 있는 외가에서 마티스가 태어난 직후 그의 가족은 보앵 앙 베르망두아(Bohain en Vermandois)라는 인근 마을로 이사한다. 마티스의 부친은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종교상이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법관이 되려 한다고. 실제로 마티스는 어릴 때는 가업을 도우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열여덟 살에서 스물두 살까지는 생강탕에서 법률사무소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가가 될 운명이었을까? 1890년,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병상에 누워 있던 마티스에게 그의 어머니는 시간이나 때우라고 물감통을 건넨다. 자신의 모든 감각이 애초에 그림을 향해 뻗어 있었음을 깨닫는 계기였다. 예술의 희열을 알게 된 마티스는 물감통을 들고 나가 마을 어귀의 풍경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마티스의 어머니는 찻잔에 손 그림을 그려 넣는 부업을 하기도 했던지라 그에게 '그리기'라는 게 전혀 낯설지는 않았을 터다. 당시 프랑스 북부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갯빛 하늘'과 탁한 공기로 뒤덮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격변기에도 그에게는 탁월한 영감의 원천이 있었다. 바로 '직물'이다. 당시 보앵은 유럽 전역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질 높은 섬유·방직 기술로 유명한 곳이었다. 샤넬 같은 오트 쿠튀르 브랜드들의 직물 공급처 역할을 하던 보앵에서 쉽게 접할 수 있던 아름다운 옷감은 그에게 풍부한 시각적 자료가 됐다. 실제로 보앵에 위치한 마티스의 집을 방문하면 재봉틀과 색채의 천 조각, 마네킹 같은 '섬유가 흐르는 DNA'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마티스는 평생에 걸쳐 색채의 천과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창조해냈다. '마티스는 20세기 후반 팝 아티스트들과 유사한 방식으

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고, 그 사물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찾아냈다.' (디스 이즈 마티스(This is Matisse))라는 책을 펴낸 캐서린 잉그램(Catherine Ingram)은 당시 장식적인 것은 천박한 예술로 여겨졌지만, 마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보앵의 장인과 상인이 수놓은 거리 문화가 그에게 창조적 영감을 줬다고 해석했다.

## 화가의 숙명을 안고 파리로 향하다

그림에 눈을 뜬 마티스는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마침내 파리로 향한다. 그는 파리 장식미술학교에 적을 둔 채 명성 높은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중 프랑스 상징주의를 대표하던 화가 귀스타브 모로의 눈에 띄어 제자로 들어간다. 마티스는 에콜 데 보자르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우연히 접한 인상주의에 매료되었다. 당시 화단에서는 데생, 즉 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봉됐지만, 마티스는 색채를 중시하면서 자신만의 탐색을 펼쳐나갔다. 스승 모로는 상징주의자인 자신과 어긋나가는 마티스의 성향을 알면서도 그를 존중했다고 한다. 1897년, 사물을 자신만의 색채로 표현해낸 '만찬 식탁(Dinner Table)'을 국립 살롱전에 출품해 온갖 비방이 쏟아졌을 때도 제자를 제일 먼저 옹호한 인물이 모로였다. 결국 마티스는 에콜 데 보자르를 중퇴했고, 프랑스 남동부 툴루즈 출신의 여성 아멜리 파레이르(Amélie Parayre)와 결혼도 했다. 마티스는 아내와 함께 신희여행을 떠난 런던에서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의 그림을 접하면서 환상적인 빛의 표현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여행자인 코르시카 섬으로 떠나서는 아예 봄과 여름을 보낸다. 이 시기에 마티스는 지중해의 빛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음을 확실히 깨닫는다. 하지만 화가로서 크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데다 강박적이라 할 만큼 수집가 기질을



1 마티스가 생양한 프랑스 북부 보앵 앙 베르망두아(Bohain en Vermandois)의 집. 지금은 그가 태어난 르 카토-캄브레시(Le Cateau-Cambrésis)에 있는 마티스 뮤지엄과 함께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2 마티스의 커리어 초반에 완성한 자화상. 직기가 직접 기증한 작품이다. 'Autoportrait'(1900), charcoal on ingres paper, 62.5x48cm, Photo by Benitez, Collection Musée Matisse, Le Cateau-Cambrésis. 3 20대 초반에 미술에 눈을 뜬 마티스가 커리어 초반에 그린 풍경화. 'Les Quisles-Saint-Germain'(1903), oil on canvas, 25.8x33.6cm, Photo by Florian Kleinert, Collection Musée Matisse, Le Cateau-Cambrésis. 4, 5 마티스의 고향 르 카토-캄브레시에 있는 마티스 뮤지엄. 6 보앵 집 내부에 있는 마티스의 사진과 그에게 영감을 받은 완성한 텍스타일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 선보인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 7 마티스 특유의 경쾌하고 단순한 선이 느껴지는 벽 스키퍼. 8 마티스의 'The Back' 시리즈 중 하나. 갈수족 거리의 추상적으로 단순해지면서 사물의 핵심만 남는 과정이 엿보인다. 9, 8번 사진 속 작품 모두 르 카토-캄브레시의 마티스 뮤지엄에 있다.





보이는 바람에 나름의 생활고에 시달린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그가 특히 매료된 폴 세잔(Paul Cézanne)에 반한 나머지 부인 아멜리가 에메랄드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마침내 마티스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05년 국립 살롱전에서 선보인 아멜리의 초상 'Portrait of Mme Matisse: The Green Line'이었다. 연청색이 감도는 녹색 선이 코를 가로지르는 평평한 얼굴, 연보라색이 도는 틀어 올린 머리... 무표정인데도 시선을 압도하는 묘한 기개가 느껴지는 이 작품은 당시 마티스가 수집하던 아프리카 조각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 방식으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멜리 본인조차 '볼타 무너져 내리는 집을 보고 경악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물의 본색과 다른, 마음의 눈으로 담은 강렬한 색채를 잔혹할 만큼 거침없이 내지는 덕분에 그는 '야수파'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 빛의 천국 코트다쥐르에서 찾은 안식, 그리고 영감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벌이던 마티스는 1908년 그의 명작 중 하나인 붉은 방(Red Room)을 선보인다. 붉은 식탁과 여인, 정물이 놓여 있지만 강렬하고 붉은 식탁보가 그림을 지배하는 대담한 작품이다. 꽃병에 담긴 꽃줄기가 마치 벽으로 솟은 아라베스크의 나뭇가지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당시 파상적인 세상의 물질을 거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힘에 초점을 맞춘 저명한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과 상통했고, 마티스는 점차 '궁극적인' 주목을 받았다.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던 러시아 부호이자 세기의 아트 컬렉터 세르게이 시추킨 등 그의 후원자도 나타났다. 표현주의와 추상주의의 씨앗을 뿌린, 20세기 회화에 획을 그은 그의 작품들도 시추킨을 위해 그린 것이었다(훗날 시추킨이 대부분의 컬렉션을 남겨두고 파리로 망명하는 바람에 마티스의 명작 중 상당수는 러시아에 있다). 덕분에 마티스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수년간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작업을 발전시켜나갔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마티스는 참전하길 원했지만, 45세라는 나이 때문에 거부당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어지러운 정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내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티스는 1917년부터 니스에서 혼자 지내다시피 했다. 쪽빛에 가까운 '푸른 해안'이라는 뜻을 지닌 코트다쥐르(Côte d'Azur)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 니스, 사실 마티스가 니스에 둥지를 튼 것은 기관지염 때문이었다. 고통에 시

달리던 그는 의사의 권유로 니스를 방문했다가 놀라웠다. 전쟁통의 우울함을 피할 수 있었던 데다 늘 빛을 갈구한 마티스에게 코트다쥐르는 영혼의 안식처나 다름없었다.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던 마티스는 니스에서 원하던 휴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알베르의 본능을 잃지는 않았다. 풍경도 그리고 조각 작업도 했지만 유기적인 곡선과 자유로운 필치가 돋보이는 오달리스크(odalisque, 터키의 궁녀) 그림 같은, 동양에 대한 환상을 담은 작품도 많이 남겼다. 관능미 넘치는 이런 작품은 당시 비평가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잊으려고 발버둥치는 과장된 몸부림이라는 논조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결절'이라고 말한 작품은 코트다쥐르에서 탄생했다. 바로 니스에서 멀지 않은 방스(Vence)에 있는 로제트 예배당(Chapelle du Rosaire)이다.

### 진지하고도 경쾌한 삶의 마무리

마티스는 이때 이미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 그러나 십이지장암 수술과 두 차례의 폐색전증을 겪고도 목숨을 아يا간 것 자체가 기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생이 끝나갈 무렵 신앙심이 절로 돋은 사례는 아니었다. 마티스는 "신을 믿느냐고? 작업할 때는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심을 강조한 적 없는 인물이었지만, 니스에 있을 때 간호해준 모니크 부부가 수녀와의 인연 때문에 예배당 프로젝트를 결심했다. 그녀는 마티스가 커리어 후반기의 창조적 희열을 느낀 '종이 오리기'를 통해 탄생한 또 다른 명작 '재즈(Jazz)'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1946년 수녀가 되면서 방스에 있는 예배당의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마티스는 단지 스테인드글라스만이 아니라 예배당의 모든 요소에 관여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쏟았다. 단순하지만 균형 잡히면서 명량한 느낌이 드는 이 예배당은 그의 예술관이 집대성돼 있는 '작품'이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정화되고 삶의 짐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했던 마티스. 그는 1952년 고향 르 카토-캉브레시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생긴 지 2년 뒤인 1954년 삶을 마감하고, 그토록 사랑해마지않던 니스 시미에 묘지에 묻혔다. 마티스는 "일이 모든 걸 치유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글 **고성연**



1 마티스가 말년에 4년에 걸쳐 완성한 남프랑스 방스(Vence)의 로제트 예배당(Chapelle du Rosaire, 1948~1951) 외관. 2 로제트 예배당 건물에 전시된 마티스 작품 중 일부. 예수의 상자가형들 그린 드로잉이다. 3 예배당 창문을 장식한 마티스의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과 역시 작가가 디자인한 의자. 유리를 통해 예배당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물결이 아름답다. 색채의 표현력을 평생 탐구해온 마티스는 예배당 자체를 작품 세계의 정점으로 여겼다. 4~7 마티스가 사용했던 눈부신 빛을 간직한 남프랑스 니스(Nice) 시미에(Cimiez) 지구에 위치한 국립 미술관 마티스 뮤지엄(Musée Matisse). 회화, 프라토, 조각,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작업, 테이프스트리, 도자기, 스테인드글라스 등 마티스의 광범위한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니스의 문화 예술 명소로, 17세기 빌라 건물에 들어서 있다. 인근에 마티스가 거주하면서 작업하던 레지나 호텔도 있다.



사진: Jon Jay / 링크: 프랑스 국립미술관(www.coteazurfrance.fr)



# A Powerful Eng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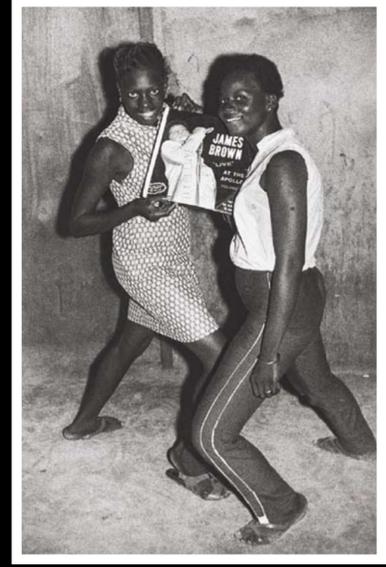
오토매틱 위치의 대중적인 인기를 견인하는 스위치 그룹의 워치 브랜드 티쏘에 있어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한 해였다. ETA사와 함께 정교한 기술력의 집약체인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해 '전통에 의한 혁신'이라는 티쏘 브랜드 메시지를 확실하게 각인 한 것. 이를 기념해 개최한 80시간 영화제, 3인의 앰배서더와 함께한 최고의 80시간을 기록한 영상까지 티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Mali Twist

▲ 카메라를 들어내지 못하는 해변의 청년들. À la plage (1974), 51x61cm, courtesy galerie du jour agnès b.,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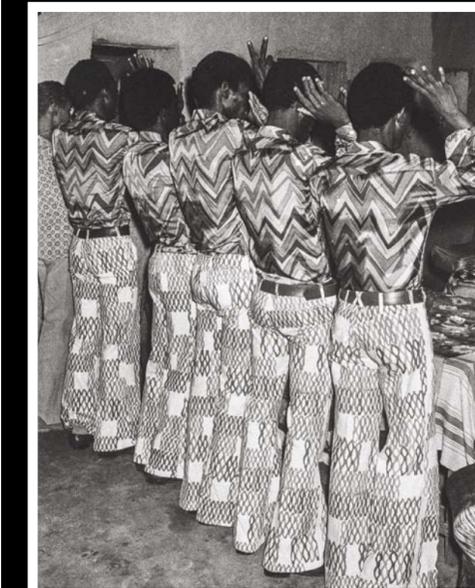
▲ 콜롬에서 수줍은 미소를 띠며 춤을 추는 10대 남매. (왼쪽) 자기 선정한 영화적 있는 사진 1백 점 중 하나로 뽑힌 시디베의 대표작, Nuit de Noël (1963), 100.5x100cm, Collection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Paris



▲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제임스 브라운의 열광을 듣고 춤추는 두 여인. Fans de James Brown (1966), 50.5x40.5cm, Collection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Paris

바마코의 눈(The Eye of Bamako)'이라는 별칭을 얻은 사진작가 말리크 시디베(Malik Sidibé)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시선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아티스트였다. 지난해 봄 타계한 시디베를 추모하는 전시가 가르피에 현대미술재단에서 열리고 있다. 흑백 감성을 품은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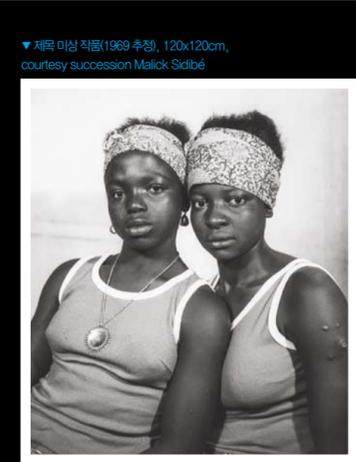
모든 색이 사라진 흑백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할까.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프리카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황금사자상 공로상을 받은 말리(Mali) 출신의 사진작가 말리크 시디베(Malik Sidibé, 1935~2016)의 흑백 작품에는 오로지 피사체의 감정만 존재하는 듯하다. 지난해 봄 작고한 시디베는 조국의 수도인 바마코(Bamako)가 문화적으로 색을 띤 1960~70년대 일상 풍경을 기록한 사진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아프리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가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은 파리 14구에 위치한 전시장에서 시디베의 작품 세계를 이우를 수 있는 <말리크 시디베, 말리 트위스트(Malik Sidibé, Mali Twist)>를 개최하고 있다. 바마코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 솔로바(Soloba)에서 태어난 시디베는 학생 시절부터 드로잉에 재능을 보였는데, 우연히 프랑스 사진작가 제라르 기아(Gérard Guillaud)의 눈에 띄어 사진에 입문했다. 1965년부터 기아의 스튜디오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2년 뒤 전문 포토그래퍼가 된 그는 1958년 바마코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연다.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말리는 문화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시디베는 새 시대를 맞아 생동하던 바마코를 배경으로 청년 문화의 담아내는 데 열중했는데, 그의 사진을 보면 대다수에게 그쳐 아프리카의 기만한 나라로만 여겨졌던 미지의 땅 밀리 사람들의 흥과 기가 뚝뚝 돌아온다. 흔히 '아프리카'라고 하면 떠올리는 가아, 질병을 소재로 한 보도사진과는 달리 그저 젊은 세대다운 밝고 쾌활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인지 시디베는 젊은이들의 리포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서 그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 등 서구 큐레이터들의 인정을 받았고, 말리가 낯은 또 다른 사진작가 세이두 케이타(Seydou Keta)와 더불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반열에 올랐다. 1984년 개관한 아메 30년 넘게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가들과 협업을 펼쳐온 가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은 아프리카 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도 일조했다. 시디베, 케이타를 비롯해 콩고 출신 조각가 보디스 이세크 킹겔레즈(Bodys Isek Kingelez)와 화가 세리 삼바(Chéri Samba)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 밖에도 여러 단체전에서 모드 문투(Mode Muntu)의 회화 작품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말리크 시디베 추모전은 1995년 해안에서 최초로 열린 그의 개인전 이후 가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이 2009년 만에 다시 여는 전시로, 가장 방대한 규모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제임스 브라운의 팬(Fans de James Brown)', '레코드가 미쳤어요(Le Suis Fou des Disques)' 같은 대표작뿐만 아니라 미공개 반타지 프린트까지, 2백50점이 넘는 규모다. 전시는 내년 2월 25일까지. 홈페이지 http://fondation.cartier.com 글 김민서



▲ 미국 팝스타 같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현대감을 확인하는 젊은이들. Les Amis Dans La Mème Tenue (1972), 50.5x40.5cm, courtesy CAAC - The Pigozzi Collection, Genè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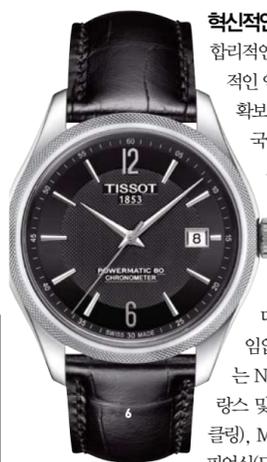
▲ 사람 문화에 심취한 당시 밀리 젊은이들은 제임스 브라운과 비틀스의 음악을 들었고, 자이브와 트위스트를 즐겼다. Dansez le twist (1965), 100.5x99cm, Collection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Paris



▲ 제목 미상 작품(1969 추정), 120x120cm, courtesy succession Malik Sidibé



▲ 한껏 포즈를 취한 어린 신사. Un Jeune Gentleman (1978), 40.5x30.5cm, courtesy Galerie MAGNIN-A, Paris © Malik Sidibé



**혁신적인 파워매틱 80 무브먼트**  
합리적인 가격과 매력적인 라인업으로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수많은 시계 마니아까지 확보한 티쏘(TISSOT), 세계 1백60여 개국에서 판매되는 티쏘 시계는 특별한 재료, 진보된 기능, 세심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정통 시계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innovators by tradition)'이라는 문구로 핵심 가치를 대표하고 있다. 티쏘 브랜드의 우수한 품질은 끊임없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티쏘는 NBA, FIBA, CBA(농구), 투르 드 프랑스 및 UCI 월드 사이클링 챔피언십(사이클링), MotoGP™, FIM 세계 슈퍼바이크 챔피언십(모터스포츠), RBS 6개국 럭비 챔피언십, TOP 14,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및 챔피언십(럭비)을 포함해 다수의 스포츠 중목에서 공식 타임키퍼와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티쏘는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와 AFL의 공식 타임키퍼이기도 하다. 이렇듯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각광받는 티쏘의 가치가 올해 제조명되었는데, 강력한 파워 리저브를 갖춘 새로운 무브먼트 때문이다.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신사동에 위치한 CGV 청담 씨네시티 11층 프라이빗시네마에서 1백64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 메이드 대표 시계 브랜드 티쏘의 파워매틱 80 무브먼트의 가치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알리는 이벤트가 열렸다. 바로 '티쏘 파워매틱 80 영화제'다. 티쏘의 우수한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한 컬렉션인 티쏘 발라드, 트래디션 오픈하트, 슈망 데 푸엘, 르 로콜의 성공적인 론칭을 기념해 파워매틱 80, 80시간의 멈추지 않는 열정(The

Memorable Moments of 80 Hours)'이라는 타이틀 아래 열린 행사다. 첫날인 22일 진행된 티쏘 영화제 오프닝 행사에서는 가수 겸 배우 윤두준, 배우 이기우, 이천희, 최태준, 이재운, 엄현정, 조보아 등 다수의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행사장을 빛냈다. 영화제 상영관 입구에는 티쏘의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한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2017년 출시한 매력적인 파워매틱 80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80시간의 가치를 이어가려는 3인의 앰배서더**  
이 상영관에서는 최근 비보이 하위동과 결혼을 발표한 현대 무용가 최수진, 헤어 디자이너 오민, 그리고 CF 감독 장필의 열정이 담긴 80시간을 촬영한 무비 시사회까지 더해 파워매틱 80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몄다. 그중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장필 감독은 레미마, 이마트, 아디다스, 국민은행 등 여러 브랜드의 광고를 제작한 중견 CF 감독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 티쏘 위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티쏘의 우수한 기술력을 기념하고자 80시간 동안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 티쏘 파워매틱 80 영화제는 <킬러의 보디가드>,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터널 선샤인> 등 '시간'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인기 영화를 상영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티쏘와 CF 감독 장필이 만난 80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은 티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Tissot.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49-8237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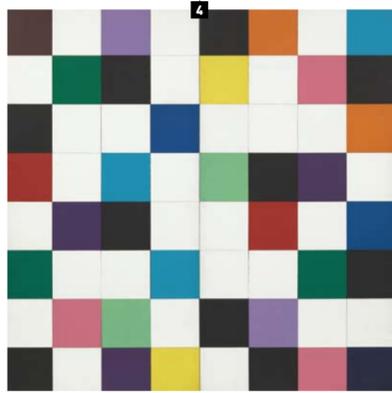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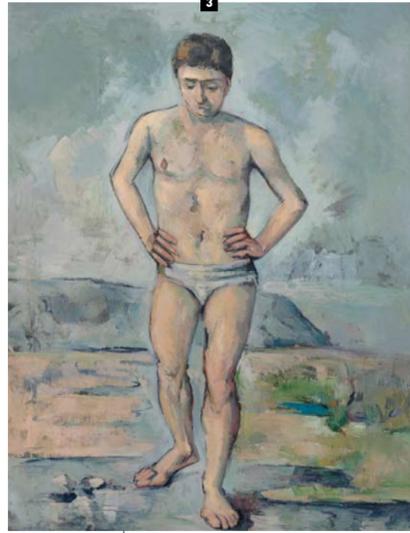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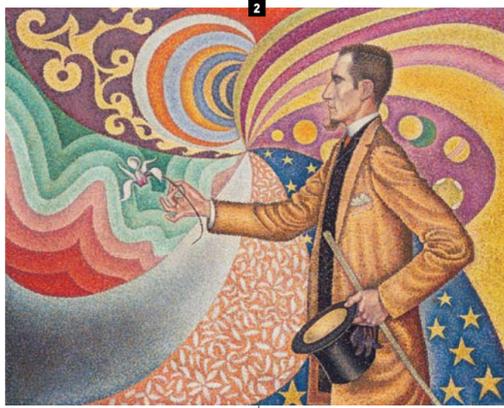


**80시간 속 8번의 컷**

CF/MV 감독 장필.

'15초의 미학'이라 불리는 광고, 컷과 컷의 결합은 완성. 그것이 광고이며 살아있고 그는 말한다. 변의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완성시키기 위한 80시간의 불꽃 튀는 여정. 그 여정의 모습을 들여다 본다.

1 지난 9월 80시간 영화 상영 행사가 열린 CGV 청담씨네마에서 티쏘의 대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었다. 2, 3 CF 감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장필 감독에게 티쏘의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는 필수품이 되었다. 4, 5 삼보근 밸런스 스포츠를 장악해 더욱 정교하게 시간을 구현하는 티쏘 발라드 컬렉션. 6 12시 방향에 스텔라톤 형태의 디테일을 더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오픈하트.



# MoMA in Paris

2014년 가을 개관한 지 3년 만에 무려 3백5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면서 파리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Fondation Louis Vuitton), 올가을에는 명실공히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이 자랑하는 현대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과 손을 잡았다. 지난 10월 초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열리는 <모마 인 파리(Being Modern: MoMA in Paris)>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난 이곳을 둘러싼 진정한 무게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2014년 10월 말, 파리 16구의 싱그럽기 그 지없는 블루누 숲속에 자태를 드러낸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장 프랑크 게리(Frank Gehry)는 당시 개관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젊은 시절 파리에 머물기도 했던 만큼 애정을 담았다는 이 미술관은 처음에는 그 화려한 외형 때문인지 기괴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1회의 기획전을 꽤 이따기 꾸러오면서 순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세기 초반의 이본 역사 속에 파파르도 망명하는 등 저민민정할 삶을 산 러시아 미술 애호가의 배아인 컬렉션을 소개한 <현대미술의 아이콘-추진진 컬렉션>으로 단일 전시로는 프랑스 최대인 관람객 1백20만 명 동원이라는 흔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올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뉴욕 MoMA'를 키워드로 삼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 뉴욕과 파리의 예술적 연대

1929년 문을 연 MoMA는 현대미술의 메카인 뉴욕을 상징하는 문화적 성소(聖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할 만큼의 존재다. 20세기 전환기에 설립되면서 초창기부터 '모던(modern)'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많은 담론과 논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기에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무게감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마 인 파리(Being Modern: MoMA in Paris)>는 MoMA가 설립된 이래 수집해 온 대표작 2백여 점을 소개하는 대형 기획전이다. 근대미술의 탄생을 알리는 작품부터 트랜드와 스타일에 따라 발전해온 미국 추상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같은 다양한 시조를 아우르는 건 물론이고, MoMA가 진화를 꾀하면서 추구해온 유동적이고 여러 요소가 결합된 설치물 프로젝트 등 그야말로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 구성을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엔 파리로 건너온 대표작 중에는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폴 사냐,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 조르조 데 키리코, 에드워드 호퍼, 미르셀 뒤샹, 알렉산더 콜더, 르네 마그리트, 구사마 아야이, 윌렘 드 쿠닝, 제스퍼 존스 등 생생한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공간 속의 새'(1928), 팻릭 스콘젤레스-토레스의 '무제(USA 투데이 신문)'(1990), 칼 안드레의 '1백44 개의 날 정사각형'(1969), 크리스토퍼 윌의 '무제'(1990) 등 처음으로 프랑스를 찾은 작품도 있다.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 LVMH 그룹 회장의 자문위원 장-폴 클라베리(Jean-Paul Claverie)는 "회화·디자인·건축·사진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핵심 작품들"이라면서 작품 2백 점을 대서출을 기쁘게 하면서 한때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술적 참여(artistic engagement)'라는 공동된 가치관을 지닌 MoMA와 연대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명작의 향연

이번 전시는 미술관 4개 층 전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MoMA의 탄생에 헌정하는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시작해 MoMA가 최근 2년에 걸쳐 수집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모이든 지상 3층 갤러리에서 끝난다. 몇몇 작품을 소개하자면 지하 1층에는 전통 미술을 존중하면서도 고전적인 예술의 틀을 탈피한 폴 세잔(Paul Cézanne)의 혁신적인 남성 누드 '목욕하는 사람들(The Bather)'(1885)을 비롯해 회화 예술에 있어 순수한 인식의 절대성을 추구했던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절대주의 구성: 흰색 위의 흰색(Suprematist Composition: White on White)'(1918), 1930년대 독일의 정치적 혼돈 상황을 보여주는 막스 베크만(Max Beckmann)의 3연작 '출발(Departure)' 등이 있고, 지상 1층에는 미국 추상주의 대가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의 '큰 벽을 위한 색상들(Colors for a Large Wall)'(1951),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익사하는 여자(Drowning Girl, 1963)' 등 미니멀리즘과 팝아트 작품이 있다.

이러 2층에는 비디오 아트의 가장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n)의 '휴먼/욕망(Human/Need/Desire, 1983)', 70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무제 영화 스틸(Untitled Film Stills Series)' 등 몸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담은 작품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층을 채운 주요 작품으로는 예술과 세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로만 온다(Roman Ondak)의 '우주 측정하기(Measuring the Universe)',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수백 편의 자체 발행 잡지를 포함해 매일 쓰는 휴대용 속 1백76개 이모티콘 세트를 선보인 레레 사베리(Lele Saveri)의 공동체 지향적 작품 '뉴스탠드(The Newsstand)' 등이 있다. 이번에 작품 선정과 구성을 맡은 쿼엔틴 바자(Quentin Bajac)의 바람대로 MoMA전은 이 아름다운 숲속의 미술관을 찾은 이들에게 MoMA의 철학에 내재된 다학제적 접근을 보여주는 생기 넘치는 유기체 같은 미술관을 경험하는 인상적인 사례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글 **고성연**

1 Cindy Sherman, 'Untitled Film Still #21'(1978), gelatin silver print, 19.1x24.1cm. ©2017 Cindy Sherman 2 Paul Signac, 'Opus 217. Against the Enamel of a Background Rhythmic with Beats and Angles, Tones, and Tints, Portrait of M. Félix Fénéon in 1890'(1890), oil on canvas, 73.5x92.5cm. ©Adago, Paris 3 Paul Cézanne, 'The Bather'(1885), oil on canvas, 127x69.8cm. ©DP & Ellsworth Kelly, 'Colors for a Large Wall'(1951), oil on canvas, 240x240cm. ©2017 The Estate of Ellsworth Kelly 5 Roy Lichtenstein, 'Drowning Girl'(1963), oil and synthetic polymer paint on canvas, 171.6x169.5 cm. ©Estate of Roy Lichtenstein New York/ADAGP, Paris 6 모마 인 파리 전시장 ©Association Marcel Duchamp ©2017 Calder Foundation New York ©Adago, Paris, photo by Fondation Louis Vuitton/Marlin Argyrolo



Exhibition

## LIFESTYLE



**로얄 살루트 브리티시 럭서리 스토리 영상** 로얄 살루트는 배우 한고은과 함께 영국 곳곳에서 경험한 브리티시 럭서리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럭서리는 단순히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담아내고 확고한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현재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라는 내용을 표출했다. 또 이 영상을 통해 영국 상류층의 품격 있는 사교의 정예는 항상 최고의 위스키, 로얄 살루트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의 02-549-3065

## BEAUTY



**프라다 라팜므 앤 르움므 인텐스 향수** 프라다는 브랜드의 상징적 코드를 담아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남녀 커뮤 향수, 라팜므와 르움므의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인텐스 버전, 라팜므 앤 르움므 인텐스를 출시한다. 프라다의 상징적인 사피노 가죽, 말라노 로고, 체크무늬, 기하학적 디자인을 세련되게 표현한 보틀에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센슈얼한 향을 담았다. 문의 02-3443-1805

## JEWEL & WATCH

**샤넬 보이, 프렌드 트윈드** 샤넬은 '보이, 프렌드' 워치의 새로운 트윈드 브레이슬릿 버전을 선보인다. 샤넬 N5 향수병과 방동 광장을 본떠 완성한 브랜드의 대표 아이콘 프리미에르 워치를 연상시키는 팔각형 케이스에 중성적인 매력을 더한 보이, 프렌드는 현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샤넬만이 지닌 유일한 DNA를 담은 새로운 보이, 프렌드 트윈드 브레이슬릿 워치는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3442-0962

**티쏘 발라드 워치** 티쏘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함께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신기술인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한 발라드 컬렉션을 소개한다. 하이엔드 럭셔리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최상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강한 내구력과 지속력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 SHOWROOM



**펜디 캔아이 로고 백** 펜디는 브랜드의 청초 정신을 보여주는 캔아이 로고 백을 선보인다. 할리우드, 나나 줌스, 타마라 칼라, 손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물루 인사들의 손에 들린 캔아이 로고 백은 알달게에 F는 FENDI' 원형 로고를 장식했다. 심플한 디자인에 소재와 색, 기법의 독특한 조합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아우터로 멋스러운 룩을 완성해줄 것이다. 문의 02-726-4500

**불가리 2018 S/S 액세서리 컬렉션 프리젠테이션** 불가리는 지난 9월 21일,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동안 '2018 S/S 액세서리 컬렉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자유로운 감성의 디자인, 폭발적인 그래픽, 스트리트와 메탈릭 레더를 키워드 만들어낸 불가리의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업은 현대 도시를 점령한 가리 예술의 자유분방함과 매력에서 영감을 받았다. 불가리의 모던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도시의 자유분방한 매력과 가리 예술을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056-0171

**버버리 영국적 미학을 강조한 새로운 캠페인 공개** 버버리는 영국적 미학을 강조한 새로운 캠페인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카리 멀라비와 맷 스미스가 모델로 나서며 영국 출신의 사진가 일리스데어 맥벨린이 촬영했다. 다양한 매력을 담은 이번 영상을 통해 영국을 상징하는 패셔너블 패턴, 컬러를 적용한 스카프, 코트,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을 엿볼 수 있다. 버버리의 새로운 컬렉션은 버버리닷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루이 비통 방동 메종 오피스** 루이 비통이 역사 깊은 파리 방동 광장에 루이 비통 방동 메종을 오픈했다. 건축가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설계로 방동 광장 2번지에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되는 방동 메종은 1백60여년

을 선택할 수 있는 '아몰레드 드 가르띠에'를 소개한다. 아몰레드 드 가르띠에 컬렉션은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밀라카이트와 평화를 상징하는 크리스프레이즈, 생명력과 영성을 의미하는 카날리언 등 총 7가지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원석을 선택하는 재미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 새로운 시리즈는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어링으로 선보이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가르띠에 아몰레드 드 가르띠에** 가르띠에는 탄생석이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원



# SHOWROOM



전 루이 비통 메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곳에서는 루이 비통 쿠튀르 컬렉션부터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주얼리, 시계, 가죽 제품, 슈즈, 액세서리, 향수, 기프티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0914 색종이 백** 0914는 종이접기를 콘셉트로 선보인 색종이 백을 소개한다. 가방의 보드와 톱 부분의 컬러 콘트라스트, 소재의 믹스 매치가 특징인 이 백은 토트백과 라지 토트백, 크로스백, 37지 스타일로 선보이며, 파우더와 블랙, 로즈, 인디고, 4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2056-0914

**몽클레르 몽클레르 C** 몽클레르는 관련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과 협업해 완성한 '몽클레르 C' 컬렉션을 공개했다.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몽클레르 C 컬렉션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다운 재킷에 중점을 두어 그의 독창성으로 재해석한 다운 재킷과 베스트,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과 컬러로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블랙과 네이비, 밀리터리 그린으로 출시하며 국내에서는 서울 플라자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14-0900